특별조사과제 2006 - 1

사례 중심의 동북아 진출 전략

-중국 동북지역-

2006. 6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발 간 사

우리나라는 물류, 금융 등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을 한국, 북한, 일본, 몽골과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이 지역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경제 발전단계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 중국과 일본의 반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은 경제협력 필요성과 잠재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진출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 지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특히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기업들의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양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을 기획하였으며, 먼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서부 대개발을 추진한데 이어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을 자본재 생산기지로 육성하여 주장(珠江)삼각주인 동남 연해, 창장(長江)삼각주인 동부 연해, 징진지(京津冀)인 북부 연해에 이은 제4의 경제성장축으로 그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동북지역이 중국 정부의 재건정책으로 자본재 생산기지로 부상되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해 향후 우리의 주된 경쟁자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로서 중국의 정책변화와 동북지역의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는 동북지역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기업 중심의 진출모델을 제시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본 보고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시장규모와 성장전망, 생산요소 공급상황, 제도 환경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역과의 교역,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물론 동북지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고, 제Ⅳ장에서는 중국 제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이어 동북지역에 내수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진출한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다양한 제조업 사례를 분석하여 내수시장의 성공적인 모델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우리기업이 동북지역에 진출하는 제조업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별, 고객별 진출 전략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현지와 각종 경로를 통해 입수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주영 선임조사역이 집필하였으며, 통계자료 정리와 교정에 김재원 전문연구원이, 내용 전반에 대한 유익한 조언은 안응호 팀장이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본 보고서 집필에 전력을 다한 연구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본 보고서가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6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소장 이 재 민

차 례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Ⅱ. 중국 동북지역 진출 여건

1.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6
   - 가. 동북지역 개황 ····· 6
   - 나. 시장 규모 ····· 9
   - 다. 성장 전망 ····· 10
2. 생산요소 공급 상황 ····· 15
   - 가. 노동력 ····· 15
   - 나. 고정자산 투자 ····· 17
   - 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 19
   - 라. 원자재 조달 ····· 20
3. 제도 환경 ····· 21
   - 가. 외국인투자정책 ····· 21
   - 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 23
   - 다. 동북지역 재건 ····· 39
4. 결 론 ····· 56

차 례

Ⅲ.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동향

1. 우리나라와의 교역 ····· 59

가. 교역 추이 ····· 59
나. 교역 품목 ····· 63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 67

가. 투자 추이 ····· 67
나. 업종별 추이 ····· 71

3. 현지법인 경영성과 ····· 74

가.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 74
나. 경영성과 분석 ····· 77
다. 차입금 조달 ····· 80

4. 결 론 ····· 83

Ⅳ. 중국 동북지역 진출사례

1. 중국기업의 제조업 모델 ····· 86

가. 제조업의 특징 ····· 86
나. 분야별 특징 ····· 89
다. 결 론 ····· 92

2. 일본기업 등의 진출 사례 ····· 93

가. 三洋電器의 소형 가전 생산 ····· 93
나. 洋馬農機(中國)의 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 생산 ····· 96

차 례

다. 富士和機械工業의 자동차부품 생산으로 자가용 시대 대비 100
라. 富奧石川島過給機의 자동차 부품 터보 과급기 생산 103
마. 瀋陽古河電纜의 초고압 케이블과 연결부품의 생산 106
바. 佳通輪胎(中國)投資有限公司의 상장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 107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109

가. ○○ 산전의 내수용 배전반, 변압기 등의 생산 109
나. ○○ 개발(주)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111
다. ○○ 전자의 Film 콘덴서용 금속 증착필름 생산 115
라. ○○ 가구의 가구 전시장 임대 119

Ⅴ. 결론: 우리기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전략

1. 제조업 중심의 진출 전략 124

가. 제조업 중심의 진출 모델 124
나. 산업별 진출 전략 126
다. 대상 고객별 진출 전략 128
라. 진출 형태 136

2. 진출기업의 금융지원 가능성 137

가. 해외투자 관련 자금 지원 137
나. 중국 금융법인 설립 모색 139

표 차 례

<표 Ⅱ-1> 동북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 현황 7
<표 Ⅱ-2> 주요 원자재 공급 현황 7
<표 Ⅱ-3> 동북지역의 시장 규모 10
<표 Ⅱ-4> 중국 경제성장률 11
<표 Ⅱ-5> 동북지역의 전문 인력과 특허신청 현황 15
<표 Ⅱ-6> 동북지역의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 16
<표 Ⅱ-7> 동북지역의 총 고정자산 투자의 재원 조달 구성 18
<표 Ⅱ-8> 동북지역의 총 고정자산 투자 현황 19
<표 Ⅱ-9> 동북지역의 주요 원자재 생산분포 현황 21
<표 Ⅱ-10> 중국의 각 지방별 최저임금 수준 31
<표 Ⅱ-11> 각 지방별 장애인 최저 의무 고용비율 32
<표 Ⅱ-12> 구조조정 후 기업별 발전방향 48
<표 Ⅱ-13> 동북지역 주요 철도운송로 현황 52
<표 Ⅲ-1>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의 교역 현황 59
<표 Ⅲ-2> 우리나라와의 동북지역 교역에서 랴오닝성의 비중 62
<표 Ⅲ-3> 우리나라의 대 동북지역 상위 10위 수출 품목과 수출 비중 64
<표 Ⅲ-4> 우리나라의 대 동북지역 상위 10위 수입 품목과 수입 비중 66
<표 Ⅲ-5> 우리나라의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68
<표 Ⅲ-6>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69
<표 Ⅲ-7> 우리나라의 투자법인 형태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70
<표 Ⅲ-8> 우리나라의 업종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71
<표 Ⅲ-9> 우리나라의 제조업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72

표 차 례

<표 III- 10 > 우리나라의 비제조업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 73
<표 III- 11 > 분석 대상 현지법인 투자현황 ····· 74
<표 III- 12 > 영업 시작 연도별 동북지역 현지법인 현황 ····· 75
<표 III- 13 > 분석 대상 투자법인의 형태 ····· 76
<표 III- 14 > 분석 대상 업종별 현황 ····· 77
<표 III- 15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자금 용도별 차입 현황 ····· 81
<표 III- 16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처별 현황 ····· 81
<표 III- 17 > 동북지역 현지법인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현황 ····· 82
<표 III- 18 > 중국 현지법인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현황 ····· 82
<표 IV- 1 > 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주요 인허가 내용 ····· 112
<표 IV- 2 > 중국 진출기업 사례별 경영전략 ····· 123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중국의 단계별 발전 목표 ····· 8
<그림 Ⅱ-2>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 추이 ····· 14
<그림 Ⅱ-3>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 24
<그림 Ⅱ-4>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상승률 추이 ····· 29
<그림 Ⅱ-5> 동북지역 육상운송로 ····· 51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중국 교역 중에서 동북지역 수출입 비중 추이 ··· 61
<그림 Ⅲ-2>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 추이 ····· 62
<그림 Ⅲ-3> 연도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현황 ····· 78
<그림 Ⅲ-4> 업종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현황 ····· 79
<그림 Ⅲ-5> 투자법인 형태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현황 ····· 80
<그림 Ⅴ-1> 중국 시장진출 제조업 모델 ····· 126
<그림 Ⅴ-2> 역외 담보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출 절차 ····· 139

사례 중심의 동북아 진출 전략

-중국 동북지역-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정부 차원에서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제4의 성장축으로 부상 모색 중

– 1979년 동부지역의 개혁개방 이후 2000년에 서부 대개발을 추진한데 이어 2004년부터 동북지역의 재건을 추진함

–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을 자본재 생산기지로 육성하여 주장(珠江)삼각주인 동남 연해, 창장(長江)삼각주인 동부 연해, 징진지(京津冀)인 북부 연해에 이은 제4의 경제 성장축 역할을 부여할 계획임

□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 가능성과 우리의 진출 전략을 제시

– 최근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동북아 전체도 경제가 발전 중임

– 하지만, 동북아지역을 협의로 구분할 경우 경제발전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과의 연관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동북아지역의 공동 발전이라는 점에서 역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북아지역은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하나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

- 일반적으로 학술적 의미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음

① 협의: 한국, 북한, 일본, 몽골,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으로 학자들의 다수가 이에 동조

② 광의: 한국, 북한, 일본, 몽골,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으로 아시아의 동북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③ 또 다른 광의: 한국, 북한, 일본, 몽골, 중국 등 5개국으로 아시아의 북부를 의미하는 대륙 분류 기준의 개념이며, 이 경우 러시아는 대륙 분류에서 유럽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됨

- 본 보고서에서는 협의의 개념의 동북아지역을 상정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와의 경제발전 가능성과 천연자원 등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북아지역 가운데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2. 연구 목적

□ 동북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모델을 제조업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북지역도 동일하게 제조업 위주의 투자라는 점에서 제조업의 진출 모델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해 먼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시장규모와 성장 전망, 생산요소 공급 상황, 제도 환경 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함

- 동북지역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를 분석하고 시장규모와 경제성장 전망을 조망함
- 노동력, 고정자산투자, 원자재 조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분석 시도
-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내의 동북지역의 외국인투자정책, 최근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는 물론 동북지역 재건 정책 내용을 파악
-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역과의 교역,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내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기 진출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함

□ 다음으로 동북지역에 진출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사례를 통해 진출 모델 발굴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례 분석에 앞서 중국 제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이어 동북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다양한 제조업 사례를 분석
- 사례 분석 내용은 제3국 시장 진출은 생산요소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시장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현지법인의 자금 수요를 고려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모색함

Ⅱ. 중국 동북지역 진출 여건

1. 시장규모 및 성장전망

가. 동북지역 개황

□ 경제발전을 위한 원자재 공급기지 역할 수행

– 동북지역*은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유, 철광, 석탄 등의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등의 동부 연해지역에 공급

○ 전국적으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도시 61개 가운데 동북지역에 1/3에 해당하는 20개가 소재(<표 Ⅱ-1> 참조)

○ 천연자원으로 인해 발전된 대표적인 도시로는 석유의 다칭(大慶), 판진(盤錦), 석탄의 푸순(撫順), 푸신(阜新), 랴오위안(遼源), 지시(鷄西), 철강의 안산(鞍山), 번시(本溪), 삼림의 둔화(敦化), 이춘(伊春) 등이 있음

* 동북지역은 헤이룽장(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의 동북3성을 일컬음

<표 Ⅱ - 1> 동북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 현황

	遼 寧	吉 林	黑龍江
석유	遼河(盤錦)	-	大慶
석탄	撫順, 阜新, 鐵法, 北票, 本溪, 葫蘆島	遼源, 琿春, 松原,	鷄西, 鶴岡, 雙鴨山, 七台河
철	鞍山, 本溪	-	-
삼림	-	敦化, 臨江, 和龍	伊春, 鐵力

자료: 振興東北 등에 의거 작성

-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36.8%, 목재의 25.6%, 철강의 12.1%, 석탄의 8.2%를 공급

<표 Ⅱ -2> 주요 원자재 공급 현황

	원유(만 톤)	목재(만 ㎥)	철강(만 톤)	석탄(억 톤)
전체	17,500	4,759	29,723	19.6
동북지역	6,447	1,216	3,587	1.6
비중(%)	36.8	25.6	12.1	8.2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4

□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민간기업 역할 제한적

- 동북지역은 국유기업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공업 중에는 중공업이 80% 수준으로 높음

○ 2003년 전국 민간 500대 기업 중에서 랴오닝 10개, 헤이룽쟝 6개, 지린 1개 등 총 17개로 전체의 3.4%에 불과. 반면, 저쟝은 165개, 쟝쑤 105개나 됨

□ 중공업기지로 중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경제개발 2차 5개년(1961~65년) 중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 경공업 발전보다는 역내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공업이 발전함

○ 1949~86년 기간 중 중앙정부의 동북지역의 공업부문 투자 가운데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92% 차지

– 주요 중공업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등이 있음

○ 다칭(大慶), 랴오허(遼河, 盤錦) 유전[1]을 바탕으로 다롄 석화(大連石化), 판진랴오허화학(盤錦遼河化工), 진화화학(錦化化工), 무단장석유화학(牧丹江石油化學), 지린화학(吉林化工) 등 중국 석유화학 공업기지로 부상

○ 철광 산지를 이용한 안산, 번시에 철강 공업 발달. 이 가운데 안산은 상하이(上海)의 바오산강철(寶鋼), 베이징(北京)의 서우두강철(首鋼), 후베이(湖北)의 우한강철(武鋼), 쓰촨(四川)의 판즈화강철(攀鋼)과 함께 중국 5대 철강 기지의 하나임

○ 공작기계,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창춘(長春)에 중국 북방을 대표하는 디이자동차(第一汽車)가 소재하는 등 기계 공업 발달

○ 중국선박중공업 그룹 소속의 다롄조선중공업(大連造船重工)과 다롄신조선중공업(大連新船重工) 등의 대형 조선 공업이 다롄을 중심으로 발달

1) 다칭 유전은 1959년 개발되어 1990년 55.6백만 톤을 생산하여 중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40.2%를 담당하였으나,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1년에는 51.5백만 톤으로 31.3% 차지. 또한 랴오허(遼河) 유전도 같은 기간 13.6백만 톤에서 13.9백만 톤으로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해상과 서부지역 원유 생산량 증대로 비중은 9.8%에서 8.4%로 감소

□ 식량 공급기지의 역할

– 옥수수, 대두, 쌀의 주요 식량 생산지역으로 한 때 600억 kg을 생산하여 전국 식량 생산량의 40%를 점유

나. 시장 규모

□ 중국 역내 지역 경제권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시장규모

– 동북지역의 인구는 1억 740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8.3%에 해당하며, GDP와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각각 1,828억 달러, 960억 달러로 중국 전체의 11.1%, 10.5%임

– 1인당 GDP와 최종소비는 각각 1,701달러, 894달러로 전국 8개 지역 경제권 중 각기 4위에 해당

○ 1인당 GDP와 최종소비의 상위는 동부 연해, 남부 연해, 북부 연해지역 순으로 개혁개방이 일찍 시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큼

<표 Ⅱ-3> 동북지역의 시장 규모

단위 : 달러

지역 구분(백만 명)	1인당 GDP	1인당 최종소비
동북지역(107.4)	1,701	894
黑龍江省(38.2)	1,679	942
吉林省(27.1)	1,321	834
遼寧省(42.1)	1,969	884
북부 연해지역(185.1) (河北省, 北京市, 天津市, 山東省)	2,054	920
동부 연해지역(139.0) (江蘇省, 上海市, 浙江省)	2,964	1,274
남부 연해지역(126.3) (福建省, 廣東省, 海南省)	2,186	1,166
황하 중류지역(191.4) (內蒙古自治區, 山西省, 河南省, 陝西省)	1,101	568
장강 중류지역(234.6) (安徽省, 湖北省, 湖南省, 江西省)	1,042	594
서남지역(250.6) (重慶市,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廣西自治區)	824	504
서북지역(59.8) (新江自治區, 寧夏自治區, 靑海省, 甘肅省, 西藏自治區)	989	578

주: 1. 2002년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 의거한 지역 구분임.
2. 중국의 1인당 GDP 1,278달러, 1인당 최종소비 지출 701달러, 인구 12억 9,988만 명임.

자료: 중국 통계연감 2005

다.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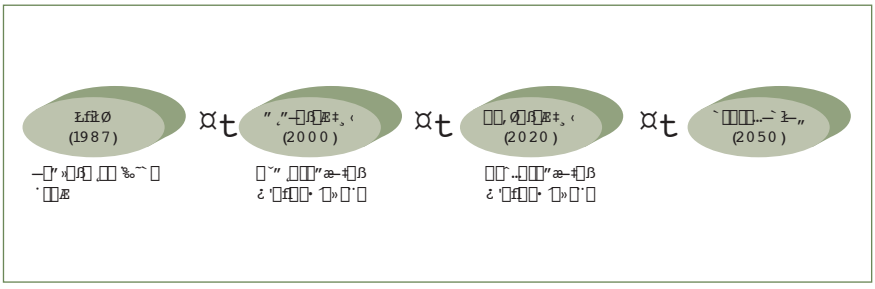
□ 2020년 샤오캉 사회 진입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 추진

- 중국정부는 2002년 제16기 공산당대회에서 2020년에 1인당 GDP

3,000달러로 전체 주민이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샤오캉(小康) 사회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국유기업 구조조정, 금융부문 개혁 외에 서부 대개발(2000년)에 이어 동북지역 재건(2003년), 중부지역 도약(2005년)을 추진함

○ 2002년 당시 중국의 1인당 GDP는 992달러임

<그림 Ⅱ-1> 중국의 단계별 발전 목표



<표 Ⅱ-4> 중국 경제성장률

단위 : %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중국	정부	9.5주	7.5	n.a	n.a
	국무원발전연구센터	9.5	8.5	8.2	7.7
World Bank		6.9		5.5	
EIU		9.5	7.9	n.a	n.a

주: 10차 5개년(2001~2005) 계획을 입안할 당시 정부 목표는 7% 안팎이었으나 실제 성장률은 9.5%였음

자료: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World Bank, China 2020, 1997, p. 20. EIU 등

□ 세계은행은 거시경제 안정과 정치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향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전망

- 세계은행은 1997년에 발표한 보고서(China 2020)에서 중국경제의 강점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세계 최고수준의 저축률, 거대한 내수시장,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통한 사회 안정, 실용주의 경제 운용 등을 적시

- 세계은행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거시경제 정책, 정치·사회 안정 등이 충족된다면 여전히 지속적인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

- EIU도 지속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며, 2006~2010년에 차례로 8.6%, 8.2%, 7.9%, 7.5%, 7.1%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중국의 성장 제약요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

- 세계은행은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제약요인으로 전환기 경제체제의 불안, 지역간·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대외통상 마찰 등을 지적

- EIU는 중국의 정치·사회가 불안해질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국유부문 비효율, 금융부실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정치 사회적 안정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

- 향후 중국 고도성장의 지속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는 화합사회(和諧社會) 유지의 대 전제인 정치·사회적 안정임

– 최근 지역간·도농간 경제격차와 실업 증대, 농민의 경작지 사용권의 무단 회수,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이 어우러지면서 크고 작은 시위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시위가 화염병 사용 등으로 과격해지면서 총기로 진압하는 경우도 발생함

○ 2004년 시위 건수는 69,000회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2005년의 시위도 87,000회로 크게 증가

– 중국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세 면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신농촌 건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그 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된 중부지역에 대해서도 '중부지역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에 나타난 시위의 주된 원인은 경작지 사용권 등의 회수시 이에 대한 보상이 현저하게 낮은 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 취득한 사용권에 대해 중국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만 사회적 불안 차단이 가능할 것임

○ 최근 산시성(陝西省) 북부지방의 유전개발권을 정부가 회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민간 유전개발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동북지역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고도성장 지속 전망

– 동북지역의 경제적 강점은 계획경제 시기의 원자재 공급지역으로서 중공업 중심의 공업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도 비교적 양호함. 특히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재건'을 통해 이 지역을 중국 자본재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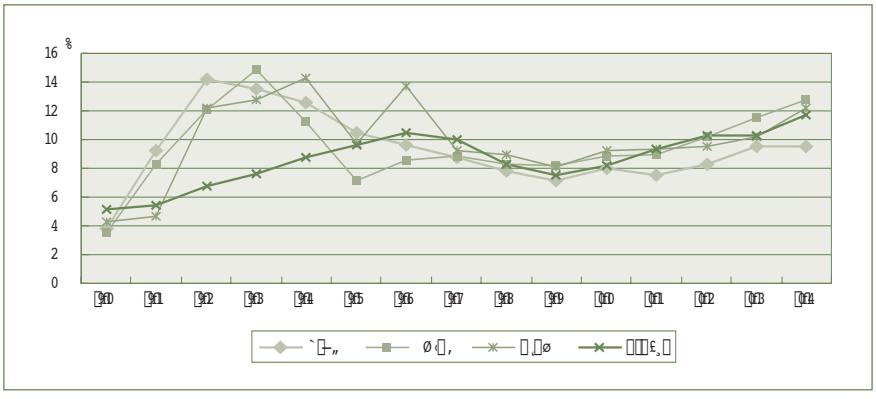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중임

- 다만, 이번 계획의 성공은 재건 핵심이 될 수 있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개혁과 주민의 의식 전환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어 효율적으로 자원배분과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달려 있음

- 〈그림 Ⅱ-2〉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97년을 기점으로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동북지역 재건'이 추진되면서부터는 랴오닝성(遼寧省)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며 중국 전체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은 중국 전체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Ⅱ-2>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호

2. 생산요소 공급 상황

가. 노동력

□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포함한 노동력 비교적 풍부

– 동북지역의 노동인력을 전문대 이상 연간 졸업생수로 볼 경우, 동북지역 인구 대비 0.57%로 중국 전체의 0.42%에 비해 노동인력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달한 북부와 동부 연해의 0.56%에 비해도 높게 나타남

<표 Ⅱ-5> 동북지역의 전문 인력과 특허신청 현황

단위 : 명, 건수, %

	전문 인력				특허 신청	
	기술 인력수(천)	비중(%)[1]	연간 졸업생수(천)	비중(%)[2]	건수 (천)	건수[3]
전국	21,740	1.7	5,448	0.42	279	2.1
동북	2,047	1.9	611	0.57	23	2.1
遼寧	783	1.8	221	0.52	15	3.6
吉林	548	2.0	166	0.61	4	1.5
黑龍江	716	1.9	224	0.32	5	1.3
북부 연해	3,164	1.7	1,042	0.56	51	2.8
동부 연해	2,008	1.5	785	0.56	69	5.0
남부 연해	1,713	1.4	498	0.39	60	4.7

주: 1. 국유기업 소속 기술 인력은 2003년 말 기준으로 각 지방별 인구 대비임
2. 연간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 수로 각 지방별 인구 대비임
3. 특허 건수(발명, 실용신안, 의장)는 각 지방별 인구 10,000명 대비임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5

○ 동북지역 전체 인구는 1억 740만 명으로 전국 지역 경제권 가운데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나, 매년 전문대 이상 연간 졸업생을 61.1만 명씩 배출

- 기술 인력도 동북지역 인구 대비 1.9%로 중국 전체의 1.7%에 비해 높고 연해 지역에 비해서도 높음

- 다만, 발명, 실용신안, 의장 등의 특허 신청 건수는 인구 10,000명당 2.1건으로 중국 전체 평균과 같으나 연해 지역의 다른 권역, 특히 동부 연해의 5.0건에 비해 크게 낮음

□ 임금 수준은 낮으면서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

- 동북지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은 연간 1,578달러로 전국 평균인 1,695달러보다 낮고,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에 비해 크게 낮음

- 1인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임금대비 29.9배로 전국 평균의 27.8배를 상회하지만,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다소 낮음

<표 Ⅱ-6> 동북지역의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

단위 : 달러, 배

구분	제조업 평균임금(A)	1인당 노동생산성(B)	(B)/(A)
전국	1,695	47,205	27.8
동북지역	1,578	47,103	29.9
遼寧	1,729	50,124	29.0
吉林	1,597	50,778	31.8
黑龍江	1,358	47,103	29.3
북부 연해	1,722	51,138	29.7
동부 연해	2,119	64,959	30.7
남부 연해	1,837	50,971	27.8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5

나. 고정자산 투자

□ 동북지역 재건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가 아직 활발하지 못함

– 동북지역의 총 고정자산투자는 2004년에 675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48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나 중국 전체의 비중은 7.9%로 2000년에 비해 오히려 0.3% 포인트 감소

○ 동북지역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외국자본의 비중도 눈에 띄게 감소. 동북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나 지방정부의 투자도 다른 지역경제권에 비해 증가하지 않음

○ 총 고정자산투자는 지역 경제권별로는 동부 연해, 북부 연해, 남부 연해지역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동부와 북부 연해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부 연해는 감소 추세임

○ 2000년의 서부 대개발 이후에도 서남과 서북지역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황하와 장강 중류가 미미하게 증가

* 여기서 외국자본은 외국인투자(FDI), 국제기구 공여 자금, 정부간 공적자금(ODA), 차관 등의 포괄적인 자금을 의미

□ 중앙정부 예산은 증가됐으나, 동북지역의 전체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감소

– 2003년부터 동북지역 재건의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2002년에 중앙정부 예산의 3.9%(20.9억 달러)에서 2004년에 7.6%(29.8억 달러)로 증가됨

○ 서부 대개발을 시작한 서북과 서남지역의 경우 국가예산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금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외국자본이 동북지역 전체 재원 가운데 2.2%로 중국 전체의 4.4%는 물론 창장 중류지역의 3.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Ⅱ-7> 동북지역의 총 고정자산 투자의 재원 조달 구성

단위 : %

	국가예산	국내 대출	외국자본	자체조달	기타	계
전국	4.3	18.3	4.4	55.7	17.3	100
동북	4.4	12.8	2.2	67.7	12.9	100
북부 연해	2.4	16.5	3.8	59.8	17.6	100
동부 연해	1.5	21.8	6.4	52.0	18.3	100
남부 연해	2.1	17.3	10.7	51.5	18.4	100
황하 중류	5.6	19.6	1.6	61.5	11.7	100
장강 중류	6.0	15.8	3.2	61.5	13.5	100
서남	5.0	22.1	1.8	52.9	18.2	100
서북	15.8	15.8	1.0	52.7	14.7	100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5

□ 랴오닝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가 동북지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비중 축소로 나타남

- 외국자본의 동북지역에 대한 투입은 2000년의 6.8%에서 2004년에 3.6%로 3.2% 포인트 감소함. 이는 랴오닝성에 대한 비중이 4.9%에서 1.5%로 3.4% 포인트 감소한데 기인

○ 외국자본은 2000년 이후 동부와 북부 연해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종전 최고로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했던 남부 연해지역이 감소추세를 보임

<표 Ⅱ-8> 동북지역의 총 고정자산 투자 현황

단위 : %

	2000		2002		2004	
		외국자본		외국자본		외국자본
전국(억 달러)	3,997	315	5,256	417	8,515	842
동북	8.2	6.8	8.0	5.8	7.9	3.6
遼寧	3.9	4.9	3.7	4.1	4.2	1.5
吉林	1.8	1.4	1.9	1.1	1.7	1.6
黑龍江	2.5	0.5	2.4	0.6	2.0	0.5
북부 연해	19.0	18.0	18.6	17.8	19.8	19.8
동부 연해	20.6	26.4	21.0	25.5	21.8	31.8
남부 연해	13.5	32.1	12.3	33.6	11.5	26.6
황하 중류	9.1	3.9	9.6	4.3	11.1	3.8
장강 중류	11.2	6.3	11.3	6.6	11.3	6.5
서남	11.1	5.3	11.5	5.2	11.0	4.7
서북	4.2	1.2	4.3	1.1	3.8	0.8
기타	3.1	0.0	3.4	0.1	1.8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외국자본은 외국인투자등을 포함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호

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 국유상업은행 중심으로 여신이 활발하며 민간 상업은행의 역할은 매우 미약함

– 국유기업 중심의 동북지역 경제로 인해 금융기관도 국유상업은행 중심으로 여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게다가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유상업은행의 여신은 국유기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음

- 국유 성격의 도시상업은행, 도시와 농촌의 신용합작사 등의 금융기관의 여수신활동이 비교적 활발함. 그러나 외자은행이나 민간 상업은행의 수량이나 역할이 극히 미미함

- 2005년 9월말 기준 동북지역에는 외국계 은행의 영업점이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다롄(大連)에 소재하고, 3개는 선양(瀋陽)에 소재

  ○ 2005년 9월말 기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20개 국가의 69개 은행이 232개 영업점을 설치하였으며, 영업점의 거의 대부분이 연해지역에 위치함

- 우리나라 은행의 중국 진출은 2006년 2월 말 기준 18개 영업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3개가 동북지역에서 영업 중임

  ○ 기업과 하나은행이 선양(瀋陽)에, 외환은행이 다롄(大連)에서 각각 영업 중임

라. 원자재 조달

□ 에틸렌, 플라스틱, 철강 등의 원자재 조달 비교적 용이

- 동북지역의 에틸렌, 플라스틱, 철강, 화학섬유 등과 같은 주요 원자재의 생산은 각각 전국에서 24.2%, 14.5%, 10.9%, 4.6%를 차지하고 있음

- 동북지역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공업지역이라는 점에서 산업용 원자재는 비교적 조달이 용이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의 하나인 화학섬유 원자재는 다른 원자재에 비해 역내 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이는 이 지역이 섬유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때문으로 해석됨

<표 Ⅱ-9> 동북지역의 주요 원자재 생산 분포 현황

단위 : %

	에틸렌	플라스틱	철강	화학섬유
동북	24.2	14.5	10.9	4.6
북부 연해	26.7	23.8	30.5	8.4
동부 연해	28.3	29.7	20.8	69.1
남부 연해	9.7	11.2	5.8	9.2
황하 중류	3.3	5.5	9.7	3.2
장강 중류	0.0	5.9	13.0	3.2
서남	0.0	2.8	7.4	1.8
서북	7.8	6.6	1.9	0.5
계	100	100	100	100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5

3. 제도 환경

가. 외국인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정책

□ 다국적기업의 자금과 선진설비 및 기술 투자로 자국산업 육성에 초점

–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우리나라의 차관 도입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과 달리 자금과 선진설비 및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의 직접

투자에 의한 자국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

- 그간의 양적 규모 투자에서 질적 효율성 제고의 투자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남

- 2000년에 '서부대개발', 2003년에 '동북지역 재건', 그리고 2005년에 '중부지역 도약' 등을 추진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소득격차 해소에 나섬

  ○ 중·서부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 도모
  ○ 노후 공업지역인 동북지역의 재건을 통해 자본재 공급기지로 육성

□ 외국인의 내국민 대우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외국인 차별화 정책 심화

- 외국인투자 정책의 총체적인 방향은 산업정책과 연계된 질적인 투자와 내국민 대우에 두고, 구체적인 각론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시로 변동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동등대우로 취급할 전망

- 그러나 일부산업, 특히 철강과 자동차 산업 정책은 내외국인 차별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는데, 철강 산업의 외국인투자 '장려' 대상 품목 변화를 통해 본 차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1995년 6월(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냉연, 열연 강판, 합금 강판, 특수강판

○ 2002년 3월(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대규모 강판, 합금 강판, 직접 환원철과 용융 환원철

○ 2004년 11월(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직접 환원철과 용융 환원철

○ 2005년 7월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외국기업 진입자격 요건

- 외국기업은 전년도 보통강 생산량이 1,000만 톤이거나 특수강 생산량이 100만 톤 이상이면서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해야 투자 가능
- 외국기업이 경영권 장악 불가
- 외국기업은 M&A 등의 방식을 통해서만 철강기업이 없는 곳에 신규로 공장 건설 가능

□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중앙정부와 기본적으로 동일

– 각 지방(省)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융통성을 가지고 운용 가능.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맥을 같이함

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 환경규제와 임금 상승 등으로 우리기업 부담 증가 예상

– WTO 가입 5년째를 전후하여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제3국 수출시장에 초점을 맞

춘 우리기업에게 각종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부정적인 측면: 자원수요 급증, 환경오염 규제, 잦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증가

○ 긍정적인 측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유사품 억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노력이 미약하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환경오염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빠르고 직접적임

<그림 Ⅱ-3>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 내부적: 고도성장의 후유증,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고용 창출

–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된 실업자 흡수를 위한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위축을 내수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주택과 자동차 수요증대 정책 추진

○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이 주택과 자동차 수요 정책과 맞물리면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중복 투자로 연결돼 원유, 철광석 등의 자원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성장 지속

– 이와 같은 성장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 세계은행에 따르면, 환경오염이 심각한 세계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16개가 중국 도시임

–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와 사유재산의 보호 불확실성 및 보상 불만 등으로 사회불안 증대

– 이 밖에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주민의 해외여행 등으로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활동도 점차 강화됨

□ 외부적: 선진국 중심으로 국제규범 준수와 이행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압력 증대

–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왜곡 시정 등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 증가

○ 미국 지적재산권 위원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등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가 지금까지 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의 2.1% 절상(달러당 8.277위안 → 8.11위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저가 수출품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위안화 환율이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저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2) 투자환경 변화 분야

– 투자환경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로는

○ 환경오염 배출이 높거나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 분야

○ 내수시장 확대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관련된 분야

○ 국유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요금 현실화와 기업 소득세 단일화 분야

○ 마케팅과 관련된 광고 분야

○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

□ 환경 관련: 환경오염으로 인한 법정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판결

– 사건의 발단은 2004년 6월 네이멍구(內蒙古) 소재 제지회사(內蒙古塞外星華章紙業, 內蒙古美麗北辰漿紙) 등이 100만㎥ 상당의 오수를

무단 방출함으로써 황허(黃河)가 오염되어 바오터우(包頭)시가 2주 동안 취수를 중단하면서 비롯됨. 바오터우시 상수도관리국은 황허 오염으로 직접 손실이 280만 위안에 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제지회사 등에게 23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중재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함

– 지난해 11월 지린성(吉林省)에서 CNPC(中國石油天然氣集團)의 지린석유화학(吉林石化)의 벤젠 공장 폭발로 인해 100만 톤 규모의 벤젠이 쑹화장(松花江)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 하류에 위치한 헤이룽장(黑龍江省)의 하얼빈(哈爾濱)이 5일 동안 식수난을 겪기도 함. 동 사건 이후 금년 1월말까지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이 45건이나 추가로 발생

<환경 관련 정부정책>

① 환경관련 법규 정비

– 생태환경 보호, 환경오염 억제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을 통해 2010년까지 도시지역 하수처리비율을 70%, 생활 쓰레기 처리비율을 60% 이상으로 제고

○ 지난해 12월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關於落實科學發展觀加强環境保護的決定)에서 그 동안 경제성장 논리로 등한시 해왔던 환경관련 법제정비 가속

○ 환경오염 총량제와 허가제를 실시하여 당국의 인가범위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에 대하여 비용 부과

– 모든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2010년까지는 이를 도시지역의 모든 기업에 전면적으로 시행

* 2005년 11월에 발표된 '기업 환경활동 평가의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企業環境行爲評價工作的意見)에서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평가 후 기업별로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으로 구분하고 등급 순서대로 녹색, 청색, 황색, 홍색, 흑색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참고로 기업이 ISO14001의 인증을 취득하고,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경우 '매우 양호'에 해당하는 녹색으로 표시됨

② 보다 엄격해진 수출입 규제

– 금년 1월부터 고 오염,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 산업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규제는 물론 부족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도 수량 제한을 실시

○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금지 품목: DDT · Hexachlorobenzene · Chlordane · HCH · Cyhexatin · Pentachloropenol 등의 농약 원액, 원목 · 펄프 등 목재, 원피, 염료, 폐동과 동광석 등

○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수출 쿼터 실시: 희토 금속, 코크스, 석유제품(휘발유, 디젤유 등), 가스, 석탄 등

③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 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 비율을 축소

– 일반적으로 공산품 수출 시에 납부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17% 가운데 13%를 환급해주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환급 폐지 품목: 콜타르(coal tar), 원피, 원모피, wet blue leather, wet leather 등

○ 증치세 환급률 5% 인하 품목: 농약, 염료, 수은, 텅스텐, 아연, 주석, 안티몬, 마그네슘과 그 제품, paraffi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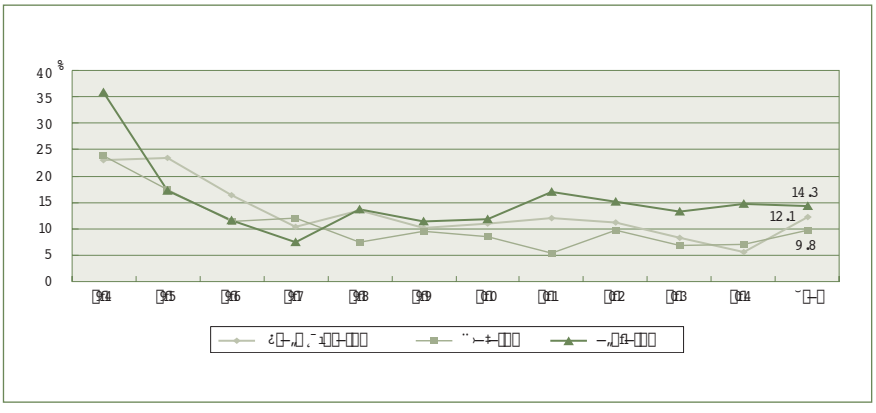
□ 임금 관련: 소득 증대를 위해 잦은 최저임금 인상

–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월 1,600위안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10월에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면세점을 1,600위안으로 800위안(약 100달러)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종전과 동일한 5~45%로 누진 과세

⇒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중국정부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림 Ⅱ-4>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상승률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이 국유기업의 최소 1.2배 수준

○ 2004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임금 수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440위안, 국유기업 16,729위안(2,470달러), 민간기업 16,259위안, 화교기업 15,727위안 수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유기업 등에 비해 최소 1.2배 높음

○ 1994~2004년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2.1%로 국유기업의 14.3%에 비해 낮으나, 민간기업과 화교기업의 각각 9.9%, 9.8%보다는 높음(<그림 Ⅱ-4> 참조). 국유기업의 높은 임금 상승률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제도 개혁으로 직원이 직접 주택을 구입하도록 바꾸면서 주택 구입자금을 급여에 반영한 때문임

○ 국유기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근 개정된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유기업 근로자는 산술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국유기업 근로자의 연간 평균임금은 16,729위안으로 연간 면세점(19,200위안)보다 크게 낮음

⇒ 향후 전반적으로 임금이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빈번한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 200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에 의하면,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최소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1년에 2회 인상되는 경우도 있음

- 최근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장쑤성(江蘇省)의 경우 2005년 7월에 최상위 그룹에 해당되는 지역의 최저임금이 월 620위안으로 인상된데 이어 11월에 690위안으로 11.3% 다시 인상됨
- 선전(深川)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월 690위안으로 인상하였으나, 금년 중에 이를 다시 인상할 예정으로 시 노동보장국이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응답자의 75%가 월 850위안으로의 인상을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상승압력으로 작용

<표 Ⅱ-10> 중국의 각 지방별 최저임금 수준

지방	최저임금(위안)	시행시기
北京	580	2005. 7. 1
上海, 深圳	690	〃
江蘇	690	2005.11. 1
浙江	670	2005.12. 1
山東	530	2005. 1. 1
天津	590	2005. 7. 1
湖北	460	2005. 3. 1

자료: 각 지방정부 관련 규정 등

– 거세지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압력 요구

○ 중국정부는 실업률 증가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최근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요구

* 일본의 닛케이비지니스는 일본계 기업이 광둥성(廣東省)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함

<장애인 고용정책>

– 1991년의 '장애인 보장법'(殘疾人保障法) 제27조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장애인 취업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도록 함

○ 동 규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의무 비율을 명시한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 규정에

의하면, 대체로 기업은 전체 직원의 최소 1.5~2.0%를 고용(〈표 Ⅱ-11〉 참조)해야 함

○ 그러나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동 규정을 거의 사문화하여왔으나, 최근 실업 증가,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적극 부활시키고 있음

<표 Ⅱ-11> 각 지방별 장애인 최저 의무 고용비율

지 방	고용비율(%)	지 방	고용비율(%)
北 京	1.7	浙 江	1.5
上 海	1.6	廣 東	1.5
天 津	1.5	湖 南	1.5
江 蘇	1.5	安 徽	1.5
遼 寧	1.7	陝 西	1.5
山 東	1.5	廣 西	1.5~2
河 北	1.5	重 慶	1.5
吉 林	1.6	四 川	1.5
黑 龍 江	1.5	湖 北	1.5

자료: 각 지방정부의 장애인 보장법 규정(殘疾人保障法辦法)

□ 세제 관련: 공공요금 현실화와 기업소득세 단일화 추진

–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현실화

○ 그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해 왔던 상수도, 전기, 휘발유, 천연가스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있음

- 최근에 베이징을 기준으로 이미 물 값은 1㎥ 당 2.9위안에서 3.7위안으로, 천연가스는 1.9위안에서 2.05위안으로, 전기는 1kWh 당 0.48위안에서 0.52위안으로 각각 인상

  ⇒ 이들 공공재 가격의 현실화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공공요금은 과거 계획경제의 잔재로 정부가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997년 제정된 '가격법'(中華人民共和國價格法)에서는 가격을 시장가격, 정부 지도가격, 정부가격으로 구분하고, 시장가격을 제외하고는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거나 공공성을 띤 유·무형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부가격은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 지도가격은 정부가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임. 정부의 가격 개입은 주로 식량, 면화, 자원, 의약품, 전기, 수도, 석유제품, 가스 등과 관련된 제품에서 이루어짐

– 내·외자 기업간의 기업소득세의 단일화

○ 내자기업의 세율은 30%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연해개방지역, 일반지역에 따라 각각 15%, 24%, 30%이고 공히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혜택이 부여됨

- 이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내·외자 기업간의 기업소득세 차별 대우를 해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중국 국유기업 등에서 제기됨. 당초 금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업소득세법의 단일화가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함

○ 내년 3월에 단일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

시될 예정이며, 통합 기업소득세율은 24~27%에서 결정될 전망임

* 중국 내 일부 인사는 내·외자 기업소득세의 단일화에 앞서 국유와 민간기업 등과 같이 소유형태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또한 외자기업의 세수 부담이 중국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는데, 외자기업의 총자산이 3조~4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기업 자산 20조 위안의 15~20% 수준에 비추어 보면, 외자기업의 세수부담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올려 상향 평준화하기보다는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하향하여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외국인 투자 관련: 첨단기술 산업, 서비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에 맞춰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

  ○ 외국인 투자의 유치 근간이 되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이 2004년 말에 개정되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 목록에는 2004년 봄의 경기과열 억제 대상이 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오토바이 등 산업이 대부분 장려분야에서 제외되었으며, 테마파크의 건설과 운용 등은 제한사업으로 추가되는 등 거시경제 정책에 맞추어 변화

- 또한 고용확대와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달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유통, 물류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 적극 유치

□ 마케팅 관련: 허위 광고에 적극 대응

- 허위 광고 사례에 대한 광고 금지와 벌금 부과

  ○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판매하는 P&G(Procter & Gamble)는

지난해 Pantene(潘婷) 삼푸 등 4개 제품에 대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베이징과 저장(浙江)에서 광고 금지와 함께 이들 제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받음. 또한 SK-Ⅱ 스킨 크림에 대해서는 장시 난창(江西省 南昌)의 공상행정관리국이 P&G에 24,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 Pantene 샴푸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머리카락이 10배 이상 강해진다는 광고 문구를 내보냈고, SK-Ⅱ 스킨 크림에 대해서는 28일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12년 이상 젊어 보인다는 광고 문구를 내보냄

  ⇒ 1995년 2월부터 발효된 광고법(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에서는 광고 문구에 사용되는 숫자, 통계자료, 조사결과 등이 사실에 부합해야 된다고 명시. 또한 광고법에서 다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폄하하는 광고(제12조)와 신문보도 형식의 광고(제13조)도 금지하고 있음

□ 사유재산 관련: 사유재산의 보호 불확실성 증대

– 정부가 무단으로 민간기업 등의 유전개발에 관한 권리를 회수하면서도 개발된 유전자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기업이 소송 제기

○ 산시성(陝西省) 북부는 건조한 고원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빈곤지역임.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세수 증대는 물론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개인과 민간기업의 원유개발을 허용하기로 함. 이 지방의 원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CNPC는 1994년 4월 중앙정부의 인가를 얻어 산시성 정부와 '산시성 북부지역의 석유자원 개발 협의서'를 체결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유전개발을 허용. 이에 따라 이 지방의 6만여 명의 투자자가 유전개발을 위해 1,000여개 민간기업을 설립하고 70억 위안을 투자. 그동안 개발한 유전자산의 가치가 140억 위안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유화 조치로 인한 실제 배상은 자산가치에 비해 크게 낮아 민간기업의 불만이 높음

- 이들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산시성 북부지방에 속한 옌안(延安)과 위린(榆林)의 지방 재정수입 가운데 원유개발과 관련된 세수 비중이 1998년에 각각 65%,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짐

○ 그러나 1999년 10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이 유전의 난개발, 채굴 설비 노후, 자원 낭비,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03년 3월 원유개발과 관련된 유전의 소유권, 경영권, 수익권을 모두 국유화시킴

* 중앙정부는 '광산 자원법(鑛山資源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유전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유전개발에 관한 권리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의 압력 행사로 합리적인 판결이 이루지지 않을까 민간기업들은 우려

– 지방정부가 개발구 조성 등을 위해 농민의 경작지 사용권을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가 빈발

○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는 지난해 12월 광둥성(廣東省)의 산웨이(汕尾)시의 둥저우(東洲)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농민 경작지에 대한 사용권 회수임. 둥저우의 경작지 사용권 회수는 과거와 달리 총기를 사용하여 경작지 사용권 회수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를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20여명이 사망함. 농민들은 경작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어장까지 파괴되는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가구당 고작 3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

* 농민의 토지 사용권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토지 도급법'(農村土地承包法)에 의거, 농민이 30년 이상 농촌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됨. 일부지역에서는 시행세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경작지는 30년 이상, 비경작지는 자원개발 등에 따라 60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농촌 주민들은 공업화의 진행으로 도시지역과의 경제격차가 더욱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터전을 공업화에 밀려 빼앗기는 데다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위 과정에서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쉽게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지적재산권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나와

– 임차 건물에서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음

○ Prada 등 4개 브랜드 제품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삼는 베이징(北京)의 가짜 상품 전문 시장인 슈수이제(秀水街)의 건물 임대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13,000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됨.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매장을 임대해 준 임대자를 상대로 한 최초의 승소 사례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 판결로 임대자가 과거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관여하지 않고 임대료만 취득하는 상황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유사 상표 등록을 통한 영업행위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선진국 등의 압력이 거세지자 주무 행정당국인 중국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이 2004. 7~2005. 9월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677만 개 기업과 28만 여개의 시장을 조사하여 위조품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6,273개 사업장을 폐쇄하고 관련자 158명의 구속 및 3억 7,6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미국 상의의 지적재산권 위원회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90% 이상이 복제품으로 지적재산권 피해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

○ 미국 커피 전문점인 Starbucks(星巴克)는 상표소송에서 승소. Starbucks는 1998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Starbucks'와 중문 명칭인 싱바커(星巴克)로 상표를 등록. 그런데 2000년 3월에 설립된 중국 민간기업인 상하이싱바커(上海星巴克)가 Starbucks와 동일한 영문과 중문 명칭을 사용함은 물론 실내장식, 메뉴판, 계산서, 명함 등도 같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 이에 따라 Starbucks는 2003년 말 유사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상하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원고의 영문명과 중문명의 상표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선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제적인 상표로 중국인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함

다. 동북지역 재건

(1) 재건방향

□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업화 가속과 더불어 산업 클러스터 형성

– 동북지역이 중공업 중심의 공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선양(瀋陽),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 등을 중심으로 발전

○ 중앙정부의 비준 하에 1차 100개 기업, 2차 197개 기업에 각각 601억 위안, 479억 위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진행 중임
○ 또한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산하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됨

– 공업기지 재건을 통해 동북지역 전역을 공업지역화하는 과거의 공업화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방별로 주도산업과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추진

– 주도산업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점유 비중이 크고, 경제효율이 높으며, 성장 잠재력이 커서 지방경제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 이와 같은 산업으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의약, 식품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첨단기술 산업과 고용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산업도 적극 육성
○ 제품의 상류와 하류 분야로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추진

– 지방별 산업분포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신규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업지역도 구조조정을 거쳐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신규 공업지역 건설은 정부 주도에서 점차 기업 주도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입주 기업 유치도 기업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 자원 고갈로 산업이 쇠퇴한 도시에 후속 산업 육성

– 산림, 석탄, 철광 등과 같은 자원의 고갈로 인해 관련 산업이 쇠퇴함으로써 실업자 발생, 광산지역의 지반침하와 생태환경 악화 등의 문제 발생

○ 자원 고갈로 인해 해당 도시, 광업, 근로자가 농촌, 농업, 농민 문제처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

– 이러한 도시에 기존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가공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존 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특정 산업을 발굴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비교우위 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 추진

– 기반이 취약한 첨단기술 산업 발전: 상대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전기전자, 자동화 부문,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등 첨단기술 산업 발전

○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해 전통산업의 공업화를 촉진

– 기계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기술도입 등을 통해 기계설비와 관련 핵심 부품, 제어시스템 관련 연구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서부대개발에 필요한 각종 대형 기계 설비를 공급. 또한 지하철과 같은 운송설비, 전자와 통신 설비, 핵발전 등의 대형설비 국산화 추진

– 원자재 공급 분야 경쟁력 제고: 생산능력이 과잉이고 효율이 낮으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플라스틱, 철강, 석유화학, 화력발전, 건축자재와 관련된 공장의 폐쇄, 합병, 매각 실시. 이와 함께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제휴 등을 거쳐 점차 이들 기업의 합병 추진으로 대형화 도모. 나아가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기계설비와 생산공정 수준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

– 농산품 관련 산업 적극 육성: 풍부한 농산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산품의 가공, 선도 유지, 보관, 판매 등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 특히 옥수수 전분, 사료 생산, 육류와 목재 가공, 특색 있는 의류 생산 추진

– 서비스업 발전: 금융, 부동산,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심도시의 서비스 산업 강화를 통해 산업간 유기적 발전 도모

– 선양, 창춘, 하얼빈, 다롄 등 중심도시를 2차 산업 위주에서 3차 산업 위주로 발전시킴. 특히 지방정부 소재지(省都)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2차 산업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고 대신에 금융, 무역, 교통, 연구개발 중심으로 발전시켜 지방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확산시키는 데 역점

- 푸순(撫順), 푸신(阜新), 지시(鷄西), 지린(吉林) 등과 같이 자원의 채굴과 이의 가공에 주력한 도시는 농산물 가공과 같은 특색산업이나 생활용품 생산의 경공업 분야로 다양화 추진

- 전통적 원자재 공급기지인 안산(鞍山), 번시(本溪), 치치하얼(齊齊哈爾) 등과 같이 원자재 공급이나 기계공업 위주의 도시는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상업, 금융, 교육, 부동산 등의 개발을 통한 서비스부문을 육성하여 고용확대 모색

□ 중국의 주요 자본재 생산 기지로 육성

-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 생산기지로 육성. 현재 중국의 자본재 생산시설은 동북지역은 물론 창장(長江)삼각주인 동남연해, 주장(珠江)삼각주인 동부 연해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동북지역이 창장이나 주장삼각주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원자재 공급기지 역할과 함께 발전설비, 공작기계, 엔진 등 분야가 발달한 때문임

  ○ 하얼빈뎬잔서베이그룹(哈爾濱電站設備集團)은 발전 설비와 선박 동력장치를 생산하는데, 발전설비 생산능력은 수력 부문 2,000kw, 화력 부문 4,500kw로 각각 전국의 1/3, 1/2을 차지

  ○ 디이자동차(第一汽車)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에 이은 중국 제2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하얼빈비행기그룹(哈爾濱飛

機集團)은 자동차 생산능력이 30만대로 전국 경차부문 2위를 기록하며, 둥안미니발동기그룹(東安微型發動機集團)은 경차 엔진 생산능력이 35만대로 이 부문 전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함. 이외에도 각종 공작기계[2], 공업용 로봇, 제련 등과 관련된 분야 발달

- 이와 달리 창쟝삼각주는 중국의 제조업 기지의 하나로 중공업과 경공업이 비교적 고르게 발달한데다 WTO 가입을 전후하여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해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의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하지만, 상하이를 중심으로 금융, 무역, 물류, 정보 등과 관련한 산업 분야 발전이 더욱 두드러짐

- 또한 동남 연해는 투자규모가 작고, 투자 효과가 빠른 경공업, 이를테면, 완구, 방직, 식품, 금속이나 전기전자의 조립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 물론 이외에도 정보통신 관련 첨단기술 집약 산업이나 철강,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도 발달함. 하지만, 원자재, 기계설비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함

- 이에 따라 동북지역이 기계설비 등 자본재 생산 기지로서의 기반이 양호한 점을 활용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자본재 생산기지는 산업별 연관성이 높은 중대형 기계설비, 각종 기계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

2) 遼寧만 하더라도 전국 공작기계 생산량의 11% 담당

(2) 재건 목표와 전략

□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로 부상

– 발전전략 목표: 2020년에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 특히 대형 설비 생산기지로 부상시켜 공업 생산액이 동남 연해, 동부 연해에 이은 제4위로 도약시키는 게 목표

– 달성 전략

○ 1단계(2004~2005)

- 기계설비, 철강, 석유화학, 농산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각기 특색 있는 초보적인 산업기지 형성
- 잉여인력 해소, 사회적 기능 분리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양호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포함한 소유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 시장 전망이 양호하고 역내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다음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중국스유텐란치그룹(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大慶油田)), 안산강철(鞍山鋼鐵), 디이자동차(第一汽車), 중국촨보중궁그룹(中國船舶重工集團公司), 하얼빈뎬잔서베이그룹(哈爾濱電站設備集團公司), 중국디이중형기계그룹(中國第一重型机械集團公司), 중국스유텐란치그룹(中國石油天然氣集團)의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 중국항쿵궁예디이그룹(中國航空工業第一集團公司), 중국항쿵궁예디얼그룹(中國航空工業第二集團公司), 중국베이팡지처처량그룹(中國北方机車車輛工業集團公司), 중국빙치궁예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公司), 중국빙치좡베이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公司)

○ 2단계(2005~2010)

-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국제적으로 지명도와 특색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와 가치 사슬이 형성된 산업기지 건설
-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 핵심 경쟁력 강화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육성
- 영향력 증대와 산업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담당하게 될 기업으로는 다음과 같음
  * 중국스유톈란치그룹(中國石油天然氣集團大慶油田): 유전 탐사와 개발 확대를 통한 원유 생산량 확대로 생산량 1위 지위 지속 유지
  * 안산강철(鞍鋼): 자동차 · 가전 · 선박용 강판, 냉연 규소강판 등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을 30%이상으로 올리고, 핵심기술과 R&D 능력을 겸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류 철강기업으로 발전
  * 디이자동처(第一汽車): 생산량은 200만대, 매출액은 2천억 위안 이상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을 25%이상으로 높여 국내 1위의 입지 구축, 승용차 분야의 개발능력과 독자브랜드 육성
  * 哈爾濱電站設備集團, 中國第一重型机械集團, 中國石油天然氣集團, 中國航空工業第一集團 中國航空工業第二集團, 中國北方机車車輛工業集團, 中國兵器工業集團, 中國兵器裝備集團 등: 자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 3단계(2010~2020)

- 첨단기술 산업, 기계설비 제조, 원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이 밖에 농산물 가공 및 녹색 식품, 의약, 관광, 식량 등을 보조로 하는 산업 구조 형성

□ 자본재 생산기지 건설 전략

– 대형 기계설비 제조기지: 기존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대형화와 고급화 실시

○ 각종 발전설비: 30만kw와 60만kw의 화력, 70만kw 수력 등 대형 발전설비, 핵 발전 설비 등의 생산, 초고압 직류 송전설비, 75만 볼트교류 송전설비, 대형 발전설비에 필요한 각종 주조물
○ 플랜트 설비: 철강 관련 박판, 냉연, 아연도금, 정밀합금강 등 설비, 대형 석유화학 설비 및 관련 설비
○ 각종 기계 설비: 연산 600만 톤의 석탄 채굴설비, 연간 8,000m 이상 석탄갱도 굴착 설비, 1,000m 이상 유정 굴착 설비 등

– 자동차와 관련 부품 생산기지: 디이자동차(第一汽車)의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추진 및 전국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 육성

○ 대형화물차와 특장차: 생산 차종으로는 고속도로 전용 화물수송이 가능한 배기량 9,000cc, 300마력 이상의 대형 화물차, 견인차 및 이와 관련된 차량
○ 소형차: 기존 경차 생산을 기반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탑승, 탑재가 가능한 차량 생산
○ 엔진 개발: LPG, CNG 용 엔진

– 각종 기계 생산기지: 국내 생산기반이 없거나 공급부족인 각종 기계 분야 육성

○ 공작기계: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의 성능과 기술 수준을 높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공작기계 생산 기술 제고

○ 각종 계측기기 등: 정보, 기계, 제련, 석유화학, 발전, 자동차, 환경보호 등과 관련 디지털, 지능화 제어기기와 계측기기 생산 및 연구개발

○ 각종 기초 부품: hydraulics, sealing devices, 정밀 대형 베어링, 거푸집, pneumatics 등

○ 각종 기계: 불도저, 굴착기, 트랙터, 디젤엔진 등

– 첨단기술 산업 기지: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자금을 활용하여 정보기술, 광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소프트웨어, 과학용 계측기기 등을 생산하는 한편, 특히 창춘을 국가 광전자 산업기지로 육성

– 농업용 기계 생산기지: 주요 식량생산지임을 감안하여 식량 생산 관련 각종 기계 생산

○ 농업용 각종 기계: 파종기, 수확기, 분쇄기, 목초 채집 및 저장 설비, 고압 스프링클러, 농약 분사설비, 절수용 관개설비, 80마력 이상 트랙터

○ 식품 가공기계: 전분 가공설비, 면화 가공기계, 과일의 세척 · 분류 · 멸균 · 선도유지 · 저장 관련 기계, 식량의 청결 · 분류 · 건조 관련 기계 등

– 의약품 생산기지: 백두산의 한약재를 이용한 각종 약재 생산

<표 Ⅱ-12> 구조조정 후 기업별 발전방향

기업명	지역	발전방향
中國石油天然氣集團 산하 유전개발기업	遼寧 黑龍江	· 유전 탐사와 개발 확대로 원유 생산량 안정적 유지
鞍山鋼鐵	遼寧	· 500만 톤의 판재 생산 능력을 추가 확대하고, 자동차 · 가전 · 선박용 판재, 냉연규소강판 등과 고속철도 궤도용 철강 위주의 고급제품 생산. 중국 내 시장 점유율 30% 유지
第一汽車	吉林	· 대형차, 승용차, 경차, 자동차부품 기술제고를 통해 자동차 생산 200만대 구축과 자체 브랜드 창출
中國船舶重工集團	遼寧	· 고부가가치 대형선박과 대형 해상 플랫폼, 군함 등 건조능력 확대 · 선박엔진 · 기타 선박 부품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주도적 역할 수행
中國石油天然氣集團 산하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	遼寧 吉林 黑龍江	· 大連, 撫順 錦州에 각각 천만톤급의 정유기지를 건설 · 撫順, 大慶, 吉林 등지의 석유화학단지 재건 · 遼陽石化分公司는 동북지역의 섬유원료 생산기지로 건설
哈爾濱電站設備集團과 中國第一重型机械集團	黑龍江	· 대형 터빈기, 대형 수력발전기, 핵발전 설비, 신에너지 발전기, 전력변환기, 압연기, 압연롤러, 주요 화학플랜트 등의 설계 및 생산 능력 향상
中國北方機車 車輛集團	遼寧 吉林 黑龍江	· 大連机車車輛廠의 주도로 大連開發區에 열차제조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전동차 개발 · 長春客車股份有限責任公司는 고속철 도열차와 전동차 개발 · 齊齊哈爾鐵路車輛集團은 화물열차 기술력 향상에 중점
中國航空工業 第一集團	遼寧	· 黎明發動機製造公司는 가스터빈기계 개발 · 沈陽飛機工業集團은 민용기, 자동차 금형, 대형 승합차 제조부문을 중점 발전
中國航空工業 第二集團	遼寧 黑龍江	· 沈陽飛機工業集團은 중소형 비행기, 헬리콥터, 경차 개발 · 哈爾濱東安發動機製造公司는 자동차 엔진 생산

자료: 동북지역 중앙기업 구조조정 지도의견 통지(東北地區中央企業調整改造指導意見的通知), 國務院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 녹색식품 생산기지 건설 전략

– 녹색식품 산업구조와 기지 재조정

○ 백두산과 싱안링산(興安嶺山) 자연보호와 생태환경 경제구역 건설: 백두산과 싱안링산은 쑹화장(松花江), 넌장(嫩江), 두만강, 압록강의 발원지이자 삼림, 수자원, 광산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다양성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 때문에 이들 약용 동식물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건강보조 식품 개발, 자연경관과 소수민족 문화 유적, 설경과 얼음 등의 특색 관광 상품 개발

○ 쑹랴오(松遼)평원과 싼장(三江)평원을 중심으로 식량생산 기지 건설: 쑹랴오평원과 싼장평원은 토지가 비옥하나 수자원이 부족함. 이는 도시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표 수질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의 과다한 이용에 기인. 이 때문에 조림과 절수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

○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보호는 물론 식품 안전에 역점을 두어 농산물 안전검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특히 채소, 과일, 식량, 차, 약재 등에 고 독성, 고 잔류 농약 사용을 금지함

○ 점진적으로 녹색식품과 유기농 식품 생산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주요 녹색식품 생산 분야

○ 대두 가공: 판로가 광범위하고 시장 잠재력이 큰 콩을 가공한 우유, 분유 생산. 이외에 인지질, 사포닌, 식용섬유 등 특수 영양 식품 개발

○ 옥수수 가공: 옥수수를 활용한 식용유, 단백질, 사료, 전분 등의 생산

○ 감자 가공: 감자 전분과 감자를 이용한 각종 식품 개발
○ 우유 가공: 전체적으로 분유 생산비중을 축소하고 분유를 생산하더라도 기능성 분유 생산에 역점. 액체 유제품은 살균 우유, 발효유, 탈지 우유, 유가공 드링크 등으로 다양화 추진. 또한 치즈 등과 같은 우유 가공식품의 적극 개발
○ 기타: 육류 가공, 채소 · 과일의 가공 및 운송, 수산물 가공

□ 대륙횡단기지 건설 전략

– 동북지역은 70여개의 각종 철도 노선이 건설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철도망이 가장 발달된 지역 중의 하나로 역내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

○ 남북: 하얼빈(哈爾濱) – 다롄(大連)
○ 동서: 바이청(白城) – 창춘(長春) – 투먼(圖們); 선양(瀋陽) – 단둥(丹東)

– 이를 바탕으로 대륙횡단철도와 연계 가능

○ 북한 – 중국 – 러시아 연결: 남양 – 투먼(圖們) – 만저우리(滿洲里) – 러시아(치타)
○ 북한 – 중국 – 타지크스탄 연결: 신의주 – 단둥(丹東) – 아라산커우(阿拉山口) – 타지크스탄
○ 중국 – 몽골 연결: 창춘(長春) – 바이청(白城) – 아얼산(阿爾山) – 몽골
○ 중국 – 러시아 연결: 하얼빈(哈爾濱) – 쑤이펀허(綏芬河)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다롄 – 하얼빈 간 고속철도를 2010년을 전후하여 건설 추진

<그림 Ⅱ-5> 동북지역 육상운송로

– 또한 고속도로를 통해 베이징(北京) – 선양(瀋陽) – 창춘(長春) – 하얼빈(哈爾濱), 선양(瀋陽) – 다롄(大連)이 연결되며, 북한과도 단둥(丹東) – 선양(瀋陽)간 고속도로로 연결됨

– 해상운송은 랴오닝(遼寧)의 다롄(大連), 단둥(丹東), 잉커우(營口), 진저우(錦州) 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향후 주된 항구는 다롄(大連)과 단둥(丹東) 항임

<표 Ⅱ-13> 동북지역 주요 철도운송로 현황(2004년)

지역	거리(km)	소요 시간주)	비고
哈爾濱-滿州里	935	15시간	러시아와 연결
哈爾濱-綏芬河	548	11시간 30분	러시아와 연결
黑河-北安	303	6시간	
北安-哈爾濱	326	6시간	
「阿爾山-白城	356	8시간*	몽골과 연결
白城-長春	333	5시간	
長春-圖們	529	10시간 30분	북한과 연결
哈爾濱-大連	945	9시간30분	
瀋陽-吉林	446	7시간	
瀋陽-丹東	277	4시간30분	북한과 연결
瀋陽-北京	856	9시간	
錦州-承德	437	11시간*	
四平-齊齊哈爾	571	15시간*	
佳木斯-圖們	581	16시간*	

주 : 빠른 열차 기준이나, *는 보통 열차 기준
자료 : 2002年 全國鐵路統計資料匯編

– 다롄은 2006~2010년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상하이와 함께 국제해운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까지 화물 2.5억 톤, 컨테이너 1,000만 TEU, 여객 운송 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화물 3.7억 톤, 컨테이너 1,500만 TEU, 여객 운송 1,500만 명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다야오완(大窯灣) 10만 톤급, 허상다오(和尙島) 7만 톤급, 창싱당오(長興島) 5만 톤급으로 확장 공사 추진

(3) 재건의 걸림돌

□ 경제체제 개혁에 상당한 진통 극복

–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생산과 유통에 참여해 온 국유기업은 마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기능 수행. 관료, 국유기업의 경영층과 근로자들은 '국유이므로 정부가 기업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이라는 계획경제 시대의 의식이 만연

–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이 낙후된 것은 시장경제 의식이 형성되지 않거나 잘못 형성된 경제체제의 낙후에서 비롯된 것임

– 따라서 동북지역을 재건하려면 낙후된 기술을 신기술로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관료를 포함한 주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구시대의 사고를 신사고로 바꾸는 것이 필요

□ 민간부문의 활성화 여부

– 동북지역에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유부문이 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기형적 발전에서 기인됨

– 게다가 국유부문 위주의 경제체제 잔재가 민간부문이 성장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함.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 비록 2004년 개정 헌법에 민간부문의 합법적 보장과 발전을 장려하고, 합법적인 사유재산의 보호는 물론 상속도 인정하였지만, 뿌리 깊은 계획경제의 잔재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민간기업들이 여전히 있음

○ 헌법 제11조 2항에 개인사업자와 민간기업 등의 비국유 경제에 대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가 이들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 명시. 또한 헌법 제13조에서는 합법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불가침과 이의 상속도 인정

– 민간부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현상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함. 문제는 직위가 높은 관료의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으나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어려움 가중

○ 랴오닝성 민간기업협회 부회장 쉬시우(許錫武)의 발언[3]

* "…우리는 고위 관료들은 무섭지 않으나 하위 관료들이 무섭다. 이들에 잘못 보이면 정말 큰 일이다… 중략 … 업무 처리로 담당부서의 과장을 찾았을 때, 돈을 바라면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돈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일이 정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

□ 재건에 필요한 자금 조성

–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기업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한 사회보장기금, 의료비,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음성적 채무를 해결해야 함

○ 동북지역 1,424개사의 중대형 국유기업이 학교, 병원 등의 운영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193억 위안(23억 달러)이며, 이 비용이 대부분 음성적 채무가 됨

○ 이 때문에 기업 개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연해지역에 비해 평균 3

3) 2003년 12월 '2003년 중국 민간기업 문화포럼'(2003中國民營企業文化論壇)에서 동북지역에 진출한 민간기업인들이 지적한 것임(www.in.xinhuanet.com, '東北振興:民營企業家擔心什麼?')

배 이상 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4]

* 지린성 소재 국유기업 3,687사의 부채가 2,254억 위안(272억 달러)으로 부채비율이 475%로 높으며, 이 가운데 국유상업은행 채무가 1,214억 위안(147억 달러)으로 채무의 54% 차지

□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노동집약 산업분야 등의 재건 전략 미흡

–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와 원자재 공급기지에 초점을 두고 재건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노동집약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미흡

– 부분적으로 식품가공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지만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퇴출되는 대규모 인력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원절약, 환경오염 규제 등의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여부

– 중국정부가 11차 5개년(2006~2010년) 기간 동안에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원 다소비와 환경오염 유발 산업의 비율이 높은 동북지역이 중앙정부 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함

– 지나치게 목표에 치중하게 되면, 자원과 환경의 피해가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임

4) 喬木編著, '振興東北', 中國工人出版社, 2004, p109

4. 결 론

□ 재건이 순조로울 경우 2010년경 경제적 변화 실감

– 동북지역 재건의 관건은 경제체제와 의식 개혁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개혁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작동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 국유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이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한다는 의식이 형성된다면, 동북지역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음

□ 제4의 경제성장 축으로 자리매김 가능

– 당초 중국정부가 구상한 동남 연해, 동부 연해, 북부 연해에 이어 동북지역을 제4의 경제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음

– 이는 2002년 제16기 공산당대표대회에서 공표한 2020년 샤오캉 사회건설을 이룩하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되는 것을 의미

○ 2020년에 GDP를 2000년의 4배로 증대시키는 것은 매년 7.2%의 경제성장을 실현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임

– 동북지역 경제발전은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 정도로 보아 랴오닝이 선도하고, 지린과 헤이룽쟝은 뒤따르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

○ 선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10년경이 되면 동북지역의 변화도 동부 연해지역의 현재의 모습과 비견될 수 있을 것임. 동부 연해지역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1994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전후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한 데서 동북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동북지역에 대해 서구 다국적기업은 비교적 호의적인 시각이지만, 일본 JETRO는 구조조정 지연과 보수성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6)]

– 독일 상공회의소(German Industry and Commerce)의 베이징 대표처: 동북지역의 공업기반이 양호하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 부품 생산기지로서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 때문에 독일의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부품기업들도 동북지역에 투자를 모색함

○ Volkswagen의 아시아지역 책임자는 Volkswagen이 중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동북지역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베이징 대표처: 동북지역은 동남연해, 동부연해, 북부연해에 비해 중공업 중심지로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고 인식. 또한 국유기업은 아직도 현대적인 기업관리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민간부문 발전이 지연되어 전략적 합작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음

○ 일본기업의 동북지역 투자는 주로 다롄에 집중되고, 부분적으로 선양에서 이루어짐. 북쪽으로 갈수록 투자가 미미함

6) www.news.xinhuanet.com,' 東三省 : 外資注目重工業'

- 미국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보고에서 다국적기업은 자동차와 관련 부품 생산에 집중되는 단조로움을 보인 것으로 조사. 이와 같은 주된 이유는 동북지역 내부적으로 상호 분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진단

  ○ 동북지역이 동남연해, 동부연해와 같이 지역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경공업과 중공업별로 생산기지를 건설할 것을 주문
  ○ 동북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사항은 동부연해의 상하이와 같은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

- 기타: 동북지역 재건에 대한 보도와 달리 구체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반응. 또한 다롄이 홍콩, 상하이와 같이 수심이 깊은 항구가 아닌 점도 동북지역의 대외경제 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다롄항 확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Ⅲ.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동향

1. 우리나라와의 교역

가. 교역 추이

<표 Ⅲ-1>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黑龍江省	수출	1.5	1.2	1.5	1.4	1.9	2.3	2.3
	수입	1.3	2.0	2.2	2.3	3.3	2.5	3.7
吉林省	수출	0.8	0.8	1.1	1.0	1.4	1.5	1.7
	수입	2.2	3.9	4.4	6.1	7.6	3.7	6.3
遼寧省	수출	10.3	15.0	14.0	16.3	19.1	20.7	21.7
	수입	7.5	10.3	10.8	12.9	16.1	23.6	30.7
소계	수출	12.6	16.9	16.5	18.7	22.4	24.5	25.6
	수입	11.0	16.2	17.5	21.3	27.0	29.8	40.7
중국	수출	136.9	184.6	181.9	237.5	351.1	497.6	619.2
	수입	88.7	128.0	133.0	174.0	219.1	295.9	386.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이하 같음

□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나 중국 전체 증가 추세에는 미달

-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과의 교역이 1999년 23.6억 달러에서 2005년 66.3억 달러로 2.8배 증가

○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중국 전체에 대한 교역은 225.6억 달러에서 1,005.7억 달러로 4.5배 증가

- 동북지역의 수출은 1999년 12.6억 달러에서 25.6억 달러로 2.0배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0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3.7배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은 136.9억 달러에서 619.2억 달러로 4.5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88.7억 달러에서 386.5억 달러로 4.4배로 증가

□ 동북지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

-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북지역과의 교역에서 미미하나마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부터 상품수지 적자로 반전된 이후 2004년에 5.3억 달러 적자에서 2005년에는 적자 규모가 15.1억 달러로 크게 확대됨

○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에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규모도 점차 커져 2005년에는 232.7억 달러에 달함

- 상품수지 적자는 2005년에 랴오닝성으로부터 철강, 곡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임

□ 동북지역의 중국 전체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점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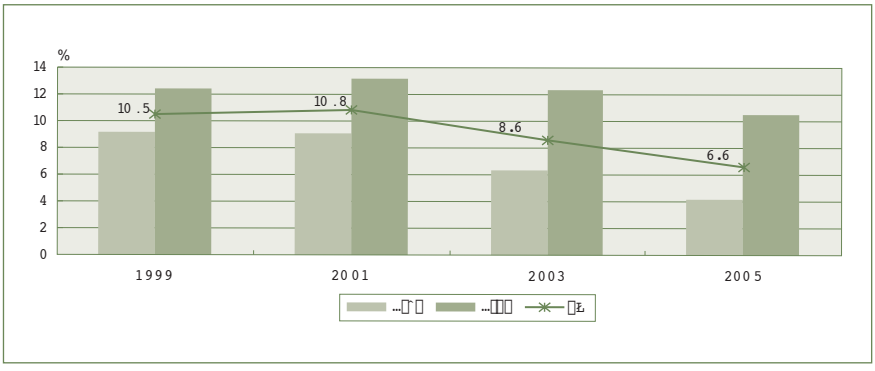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에 대한 교역비중이 중국 전체에서 1999년 10.5%에서 2005년 6.6%로 3.9% 포인트 감소

○ 세계 각국과 중국의 교역에서 동북지역의 비중이 같은 기간 중 5.6%(203억 달러)에서 4.6%(648억 달러)로 1.0% 포인트 감소

– 동북지역의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같은 기간 3.2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와는 2.8배 증가에 그침

– 수출은 같은 기간 9.6%에서 4.1%로 5.5% 포인트 감소한 반면, 수입은 12.4%에서 10.5%로 1.9% 포인트 감소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중국 교역 중에서 동북지역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

□ 우리나라와 동북지역과의 교역에서 랴오닝성이 80% 안팎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동북지역에서 랴오닝성의 교역 비중이 1999년 75.3%에서 2003년에 71.3%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급증하여 80% 안팎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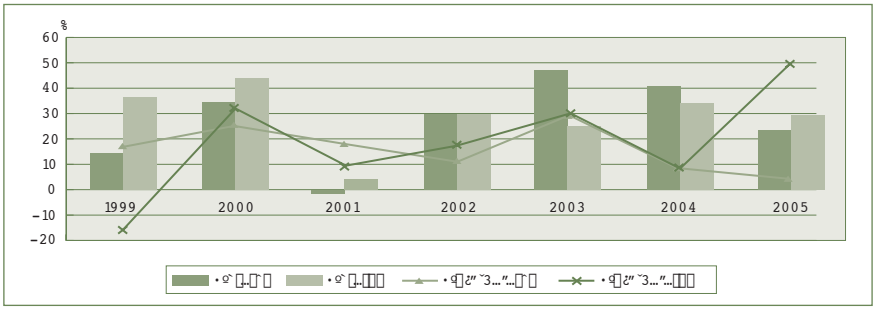
– 이는 1984년에 랴오닝성 다롄이 경제기술개발구 지정으로 대외에

개방되면서 외국인투자자금을 유치하여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반면,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은 1992년에 대외개방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Ⅲ-2> 우리나라와의 동북지역 교역에서 랴오닝성의 비중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 중	75.3	76.3	73.0	73.0	71.3	81.6	78.8

<그림 Ⅲ-2>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과의 수출입 증가율이 중국 전체보다 저조

- 중국 경제 활황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과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중국 전체보다 낮게 나타남

○ 중국과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저성장(0.3%)으로 인한 해외수요 둔화가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둔화를 가져온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임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과의 수출 수입 증감 방향성이 최근 들어 상이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과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 상반기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으로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공히 10% 이하로 둔화된 이후 2005년에는 수출은 더욱 둔화된 반면, 수입은 50% 급증

○ 2004년 상반기 경기과열 정책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체 수출이 2004년의 40% 증가에서 지난해 25% 수준으로 둔화된 것과 크게 대비됨

□ 이 같은 현상은 동북지역의 교역이 랴오닝성에 의존적인 때문

– 동북지역 전체 교역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랴오닝성이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비교적 고른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데다 역내에서 공급과잉인 철강 등의 수출을 적극 확대한 반면, 수입은 억제한데 기인

나. 교역 품목

□ 동북지역에 대한 수출 상품은 전기전자, 기계, 플라스틱, 철강, 유기화학 제품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비슷

– 대 중국 수출제품은 전기전자, 기계류 외에 2004년에 광학기기 수출이 26.9억 달러로 상위 8위에 랭크된 이후 2005년에는 4위(42.8억 달러)로 도약

- 품목별 수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기전자의 수출이 2004년에 이어 지난해에 19.0%로 동북지역 비중이 감소된 것임

<표 Ⅲ-3> 우리나라의 대 동북지역 상위 10위 수출 품목과 수출비중

단위: %

	1999		2001		2003		2005	
	중국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1	전기전자 (16.7)	전기전자 (17.1)	전기전자 (18.8)	전기전자 (20.1)	전기전자 (24.8)	전기전자 (26.1)	전기전자 (27.2)	전기전자 (19.0)
2	플라스틱 (11.6)	기계류 (11.3)	기계류 (11.8)	기계류 (12.6)	기계류 (20.0)	기계류 (15.5)	기계류 (15.7)	기계류 (16.0)
3	광물연료 (9.6)	철강 (9.4)	플라스틱 (10.7)	플라스틱 (8.6)	유기화학 (8.9)	철강 (7.9)	유기화학 (9.7)	플라스틱 (9.5)
4	유기화학 (8.8)	플라스틱 (8.1)	유기화학 (10.0)	철강 (7.6)	철강 (7.6)	플라스틱 (7.8)	광학기기 (8.6)	철강 (7.6)
5	기계류 (8.3)	인조장섬유 (5.8)	광물연료 (9.4)	유기화학 (4.5)	플라스틱 (7.4)	유기화학 (6.4)	플라스틱 (7.4)	유기화학 (6.6)
6	철강 (7.1)	인조단섬유 (4.6)	철강 (6.9)	인조장섬유 (3.9)	광물연료 (5.3)	자동차 (3.7)	철강 (6.2)	광물연료 (4.7)
7	원피 (4.4)	유기화학 (3.8)	원피 (3.7)	인조단섬유 (3.9)	자동차 (3.9)	인조장섬유 (3.2)	광물연료 (5.4)	광학기기 (4.7)
8	인조장섬유 (3.8)	원피 (3.7)	인조장섬유 (2.9)	특수직물 (3.5)	광학기기 (2.4)	광물연료 (3.1)	자동차 (5.2)	자동차 (4.3)
9	종이 (3.3)	방직제품 (3.3)	편직물 (2.5)	방직제품 (3.4)	인조장섬유 (1.7)	인조단섬유 (2.4)	동제품 (1.6)	인조장섬유 (2.5)
10	인조단섬유 (3.0)	광물연료 (2.9)	방직제품 (2.3)	편직물 (2.3)	편직물 (1.5)	특수직물 (2.1)	인조장섬유 (1.0)	기타화학 (0.5)
비중	76.6	70.0	79.0	70.4	83.5	78.2	88.0	75.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 전체에 대한 전기전자 수출은 2005년 27.2%로 비중이 더욱 증가

□ 동북지역에 대한 수입은 곡물, 의류, 수산물 등과 같이 1차 산품과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 수입 품목과 크게 상이

–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광물성 연료 외에 알루미늄, 광학기기 등임

– 2003년까지 동북지역으로부터 수입 1위 품목이 곡물이었으나, 2004년부터 철강이 1위로 부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류, 수산물이 주된 수입품임

– 수입 상위 품목에 철강, 곡물, 의류 외에 우리나라의 중국 전체 수입 품목에서 상위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차량, 목재 등이 포함

□ 수출의 집중도가 점차 강화되어 나타나나 중국 전체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

– 동북지역에 대한 수출 상위 10위 품목의 집중도가 1999년 70%에서 2005년에 75.4%로 5.4% 포인트 증가됨

○ 중국 전체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같은 기간에 76.6%에서 88%로 11.4% 포인트 증가

– 동북지역이 중국 전체에 비해 수출 집중도가 낮은 이유는 랴오닝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방이 있는 반면, 지린성이나 헤이룽쟝성과 같이 낙후된 지방이 혼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수입의 집중도는 중국 전체보다 강화

- 동북지역에 대한 수입 상위 10위 품목의 집중도가 1999년 61.8%에서 2005년에 74.4%로 12.6% 포인트 증가

<표 Ⅲ-4> 우리나라의 대 동북지역 상위10위 수입 품목과 수입 비중

단위: %

	1999		2001		2003		2005	
	중국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1	전기전자 (21.4)	곡물 (12.8)	전기전자 (22.5)	곡물 (19.8)	전기전자 (25.2)	곡물 (30.8)	전기전자 (25.0)	철강 (18.1)
2	광물연료 (8.1)	전기전자 (12.1)	광물연료 (9.7)	의류 (11.1)	기계류 (9.5)	의류 (11.5)	기계류 (12.2)	곡물 (16.0)
3	기계류 (7.7)	광물연료 (6.6)	기계류 (9.1)	광물연료 (11.0)	광물연료 (7.4)	전기전자 (8.2)	철강 (10.4)	의류 (8.8)
4	철강 (5.3)	의류 (6.5)	의류 (5.0)	전기전자 (7.0)	의류 (5.1)	철강 (6.8)	광물연료 (6.1)	광물연료 (8.4)
5	수산물 (4.5)	목재 (5.4)	수산물 (4.6)	기계류 (5.7)	곡물 (4.8)	수산물 (6.6)	의류 (3.8)	전기전자 (8.0)
6	인조단섬유 (4.2)	철도차량 (4.9)	편직의류 (3.5)	철강 (3.7)	철강 (3.6)	기계류 (4.0)	알루미늄 (2.8)	기계류 (5.5)
7	의류 (3.3)	철강 (4.4)	철강 (3.1)	편직의류 (3.7)	편직의류 (3.4)	편직의류 (3.5)	철강제품 (2.3)	수산물 (3.9)
8	면화 (2.9)	수산물 (3.7)	인조단섬유 (2.7)	수산물 (3.6)	수산물 (3.1)	광물연료 (3.4)	광학기기 (2.3)	편직의류 (2.6)
9	유기화학 (2.7)	편직의류 (3.2)	곡물 (2.7)	목재 (3.5)	알루미늄 (2.6)	철도차량 (1.4)	유기화학 (2.2)	철도차량 (2.3)
10	광학기기 (2.7)	인조장섬유 (2.2)	유기화학 (2.4)	소금 (2.3)	광학기기 (2.4)	목재 (1.4)	곡물 (2.2)	목재 (0.8)
계	62.8	61.8	65.3	71.4	67.1	77.6	69.3	74.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으로부터 수입 집중도는 같은 기간에 62.8%에서 69.3%로 6.5% 포인트 증가에 그침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가. 투자 추이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2005년 말 현재 3,104건, 15.9억 달러로 중국 전체에서 각각 22.8%, 11.7% 차지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수교 직후인 1993~1997년에 동포 활용 등을 위해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반면, 동북지역은 개혁개방 지연과 내수 시장 협소 등으로 인해 진출이 둔화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준(이하 같음)으로 2005년 말 현재 13,613건, 13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각각 48.3%, 23.2%를 차지

□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점차 감소 추세

–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와 금액이 중국 전체에서 1999년에 각각 36.2%, 15.6%였으나, 2005년에는 각각 16.0%, 8.8%로 감소

○ 반면,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건수와 금액이 각각 41.9%, 11.1%에서 51.1%, 40.3%로 증가

□ 동북지역의 투자는 소규모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 평균 투자규모의 절반에 불과

– 동북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51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헤이룽쟝성이 62만 달러로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가장 크고, 뒤이어 랴오닝성 56만 달러, 지린성 34만 달러 순임

○ 우리나라의 중국 전체에 대한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100만 달러임

□ 동북지역 가운데 랴오닝성이 우리나라 투자 건수와 금액의 2/3 차지

– 우리나라의 동북지역 중에서 랴오닝성에 대한 투자가 건수와 금액의 63.0%, 69.3%를 차지

– 지린성에 대한 투자는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26.2%, 17.7%를 차지

<표 Ⅲ-5> 우리나라의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9		2001		2003		200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국	458	366	1,049	636	1,680	1,648	2,242	2,616	13,613	13,601
동북지역	166	57	215	65	255	127	358	232	3,104	1,590
黑龍江省	14	3	22	2	19	10	24	12	335	207
吉 林 省	71	18	55	22	40	14	65	38	815	281
遼 寧 省	81	36	138	41	196	103	269	182	1,954	1,102
비중(%)	36.2	15.6	20.5	10.2	15.2	7.7	16.0	8.8	22.8	1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이하 같음)

□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금액과 건수 모두 중소기업이 주도

–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이 2,986건, 10.3억 달러로 각각 96.2%, 64.6%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이 12,913건, 65.5억 달러로 각각 94.9%, 48.2%를 차지

<표 Ⅲ-6>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9		2001		2003		200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국	대	11	252	22	300	58	720	77	1,181	700	7,052
	중소	447	114	1,027	336	1,622	928	2,165	1,436	12,913	6,549
동북	대	3	28	4	13	9	25	11	113	118	564
지역	중소	163	29	211	52	246	102	347	118	2,986	1,026
黑龍	대	0	2	2	0	1	0	3	3	21	73
江省	중소	14	1	20	2	18	10	21	9	622	165
吉林	대	0	5	1	7	0	0	1	23	24	100
省	중소	71	13	54	15	40	14	64	14	483	151
遼寧	대	3	21	1	6	8	24	7	87	73	391
省	중소	78	15	137	35	188	79	262	95	1,881	710
비중	대	1.8	49.2	1.9	19.9	3.5	19.7	3.1	48.8	3.8	35.4
(%)	중소	98.2	50.8	98.1	80.1	96.5	80.3	96.9	51.2	96.2	64.6

– 기업 규모별 동북지역의 건당 투자규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34만 달러, 478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중국 투자의 각각 66.7%, 47.5%에 불과

○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투자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1만 달러, 1,007만 달러임

□ 투자법인 형태별로 동북지역은 단독투자 비중이 약간 높아

– 동북지역의 투자에서 투자법인 형태별로 단독투자가 1,632건 15.9억 달러로 각각 52.6%, 55.8%를 차지

○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 투자는 단독투자가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67.6%, 61.1%를 차지

– 동북지역 가운데 헤이룽장성에서는 합작투자가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50.1%, 57.0%로 높게 나타남

<표 Ⅲ-7> 우리나라의 투자법인 형태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9		2001		2003		200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국(%)	단독	70.3	53.6	70.6	52.0	72.9	68.2	76.1	71.9	67.6	61.1
	합작	29.7	46.4	29.4	48.0	27.1	31.8	23.9	28.1	32.4	38.9
동북 지역(%)	단독	64.5	45.1	59.1	53.2	63.5	67.4	69.3	71.4	52.6	55.8
	합작	35.5	54.9	40.9	46.8	36.5	32.6	30.7	28.6	47.4	44.2
黑龍江省	단독	9	2	16	2	12	9	10	10	167	89
	합작	5	1	6	0	7	1	14	3	168	118
吉林省	단독	56	9	34	7	26	11	48	28	445	144
	합작	15	9	21	14	14	3	17	9	370	137
遼寧省	단독	42	15	77	25	124	66	190	127	1,021	654
	합작	39	21	61	16	72	37	79	54	933	448
계	단독	107	26	127	35	162	86	248	165	1,632	887
	합작	59	31	88	30	93	41	110	66	1,471	703

나. 업종별 추이

□ 업종별로 동북지역에서 제조업이 투자를 주도

– 동북지역의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80.1%, 73.3%를 차지

– 건수 기준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투자가 각기 증가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비제조업의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1999년 87.3%에 이르렀으나, 최근에 점차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76.4%로 10.9% 포인트 축소됨

<표 Ⅲ-8> 우리나라의 업종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9		2001		2003		200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 조 업	145	31.3	177	48.2	193	94.3	223	190.2	2,486	1,165.2
비중(%)	87.3	54.7	85.9	81.7	82.5	77.8	76.4	83.9	80.1	73.3
비제조업	21	25.9	29	10.7	41	26.9	69	36.4	618	425.2
계	166	57.2	206	59.0	234	121.2	292	226.6	3,104	1,590.4

□ 제조업은 건수기준으로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계장비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이 고르게 분포

– 제조업의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은 건수 누계 기준으로 섬유의복, 음식료품, 목재가구, 조립금속, 신발 가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도

– 반면,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은 기계장비, 석유화학, 전자통신, 수송기계 등 산업이 비교적 많음

– 최근 들어서도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도하는 양상이며, 석유화학, 전자통신 등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임

○ 전자통신 등의 감소는 동북지역 자체가 전자통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산업연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국내 전자통신 그룹 가운데 LG전자가 선양에 TV 생산 공장을 건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임

<표 Ⅲ-9> 우리나라의 제조업종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9		2001		2003		200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섬유의복	49	4.8	22	9.1	34	8.3	59	34.5	549	189.6
음식료품	16	1.9	22	5.4	27	7.8	39	10.1	286	69.1
기계장비	14	6.8	21	5.6	26	3.8	25	11.3	262	126.7
석유화학	11	1.5	29	5.0	20	7.4	20	13.8	257	87.3
목재가구	7	3.3	10	3.1	13	1.6	15	2.6	192	44.1
전자통신	5	0.9	20	5.9	17	22.2	10	12.7	167	209.3
비금속광물	9	4.7	8	2.3	7	5.3	10	1.2	121	58.2
조립금속	7	0.6	3	0.5	11	8.4	9	9.1	119	39.1
수송기계	2	1.5	7	2.7	10	18.1	9	38.7	110	146.3
신발가죽	3	1.7	6	2.1	3	1.3	3	0.4	95	50.4
종이인쇄	3	0.4	5	0.7	4	0.9	1	0.4	60	33.6
1차 금속	2	0.2	3	0.8	4	3.6	4	5.4	57	70.8
기 타	17	2.8	21	5.1	17	5.7	28	8.3	260	75.2
계	145	31.1	177	48.3	193	94.4	232	148.5	2,535	1,199.7

○ 최근 국내 전자통신 그룹인 삼성은 장쑤성 쑤저우(蘇州), 톈진에, LG는 장쑤성 난징에 비교적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음

– 투자규모로는 누계 기준으로 전자통신, 섬유의복, 수송기계 순임

□ 비제조업의 투자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이 주도

– 동북지역에 대한 비제조업의 투자는 건수 누계기준으로 도소매, 숙박음식, 농림어업, 건설 등의 순임

– 특이한 점은 도소매가 2001년 이후 투자진출이 거의 없는 반면, 숙박음식, 농림어업, 건설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수교 당시 동포를 활용한 소규모 도소매 시장에 초점을 맞춘 진출이 많았으나, 개혁개방 지연과 내수시장 협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됨

<표 Ⅲ-10> 우리나라의 비제조업종별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9		2001		2003		200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 소 매	6	11.9	0	0.0	0	0.0	0	0.0	148	99.4
숙박음식	6	3.4	5	0.5	6	0.8	23	5.8	117	35.3
농림어업	3	0.4	2	0.3	5	0.9	5	0.8	61	15.4
건 설	1	3.8	2	0.3	4	8.5	6	23.8	48	143.4
부 동 산	0	0.0	0	0.0	5	1.4	0	0.0	22	13.6
운수창고	0	0.2	0	0.2	0	3.3	1	0.0	14	12.5
기 타	5	6.3	20	9.5	21	12.1	34	5.9	208	105.6
계	21	26	29	10.8	41	27	69	36.3	618	425.2

○ 이와 달리 숙박음식, 농림어업, 건설 등의 진출이 지속되는 것은 동북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수급처 발굴, 국내 건설시장 위축과 중국의 도시화 및 구시가지 재건 등의 개발 수요 등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됨

3. 현지법인 경영성과

가.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 동북지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건수와 금액의 1.6%, 33.3% 대상 분석

–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동북지역 현지법인 45개, 452백만 달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중국 전체는 444개, 6,360백만 달러로 전체 투자 건수와 금액의 각각 3.9%, 58.0% 차지

– 동북지역의 건당 투자규모는 10.1백만 달러로 2004년 말 누계 건당 평균투자규모 49만 달러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큼

* 분석대상 중국 전체 현지법인에는 동북지역 현지법인도 포함됨

<표 Ⅲ-11> 분석 대상 현지법인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중국	동북지역
2004년 말	건수	11,368	2,746
	금액	10,970	1,358
분석대상	건수	444	45
	금액	6,360	452
	건당 투자규모	14.3	10.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이하 같음)

□ 영업 시작 연도별로 분석대상 현지법인 가운데 최근 진출 기업이 많음

– 동북지역 현지법인 45개 가운데 1999년 이전 진출이 14개로 31.1%를 차지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법인 수가 증가하여 2003년 9건, 2004년 10건으로 각각 20.0%, 22.2% 차지

○ 중국 전체는 1999년 이전이 26.3%이고, 2004년이 32.2%로 최근에 진출 법인이 더욱 많음

<표 Ⅲ-12> 영업 시작 연도별 동북지역 현지법인 현황

단위: 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黑龍江省		1	1	1			3
吉林省	3		2		1		6
遼寧省	11	1	2	3	9	10	36
계	14	2	5	4	10	10	45
중 국	117	10	30	70	74	143	444

□ 분석대상 가운데 단독투자 법인이 2/3를 차지

– 동북지역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투자법인 형태는 단독투자가 31건으로 68.9%를 차지

○ 중국 전체는 단독투자 법인이 74.1%로 동북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음

–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동북지역이 10.1백만 달러이며, 단독투자와 합작투자가 각각 7.1백만 달러, 16.6백만 달러임

○ 중국 전체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14.3백만 달러이고, 단독과 합작이 각각 9.7백만 달러, 27.7백만 달러로 동북지역에 비해 건당 규모가 더욱 큼

<표 Ⅲ-13> 분석대상 투자법인의 형태

단위: 건, 백만 달러

	단 독	합 작	비 중	계
중국	329	115	25.9	444
건당 투자규모	9.7	27.7	-	14.3
동북지역	31	14	31.1	45
건당 투자규모	7.1	16.6		10.1

□ 동북지역의 분석대상 업종 가운데 제조업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

– 동북지역의 업종별 투자를 보면, 제조업이 36건으로 81.8%를 차지하며, 비제조업은 9건임

○ 중국 전체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이 90.3%, 9.7%로 제조업 비중이 더욱 높음

– 제조업 가운데 동북지역은 전자통신, 화학, 1차 금속 등이 많고, 비제조업으로는 도소매, 건설이 각기 3건임

○ 중국 전체로는 전자통신, 화학, 자동차, 1차 금속 순이며, 비제조업으로는 도소매, 건설 등이 비교적 많이 분포됨

<표 Ⅲ-14> 분석대상 업종별 현황

단위: 건

	전자 통신	화학	자동차	1차 금속	섬유	기타 제조	소계	도소매	건설	기타	소계
중 국	88	54	49	30	24	156	401	11	7	25	43
동북지역	7	5	1	4	3	16	36	3	3	3	9

나. 경영성과 분석

□ 영업 시작 연도가 빠를수록 적자비율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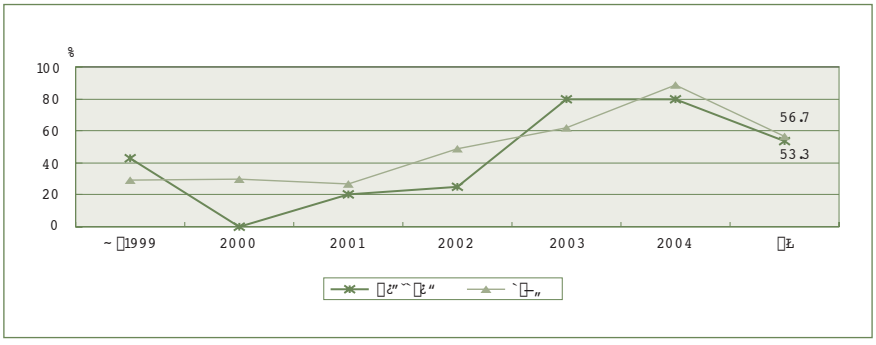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 시작 연도가 빠를수록 경영상황이 양호하여 적자비율(진출 건수 대비 적자기업 건수의 비율)이 낮고, 늦을수록 높게 나타남

○ 중국 전체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

– 동북지역의 영업 시작 연도를 고려하지 않은 적자비율이 53.3%로 중국 전체의 56.7%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중국 진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Ⅲ-3> 연도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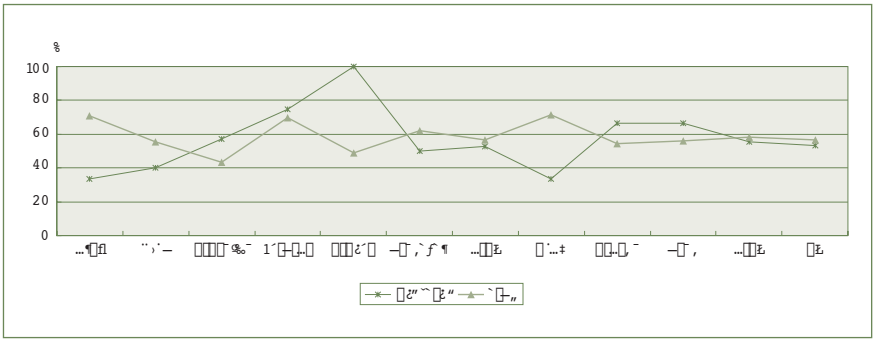
□ 업종별 적자비율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다소 낮음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적자비율을 보면, 동북지역의 제조업이 52.8%이고, 비제조업은 55.6%로 제조업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중국 전체의 적자비율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56.6%, 58.1%로 제조업이 낮음

– 제조업의 적자비율이 낮은 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때문임.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투자환경과 상관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반면, 비제조업은 개방 지연으로 인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Ⅲ-4> 업종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현황



□ 투자법인 형태별로 합작투자가 단독투자보다 적자비율이 낮게 나타남

– 동북지역 진출기업의 투자법인 형태별 적자비율은 단독과 합작이 각각 54.8%, 50.0%로 단독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중국 전체로는 적자비율이 단독과 합작이 각각 48.9%, 79.1%로 단독의 적자비율이 30.2% 포인트 낮음

– 이는 동북지역 합작 건수 14건 가운데 절반이 1999년 이전에 영업 시작을 함에 따라 적자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그림 Ⅲ-3〉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 후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적자비율이 낮아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전체 합작법인 115건 가운데 단지 15건만이 1999년 이전에 영업 시작을 함으로써 적자비율이 높음

<그림 Ⅲ-5> 투자법인 형태별 현지법인 적자비율 현황

다. 차입금 조달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이 비교적 활발

- 분석대상 45개 현지법인 가운데 57.8%인 27개 기업이 국내외에서 총 40건의 자금조달을 함

○ 중국 전체는 444개 현지법인 가운데 55.2%에 해당하는 기업이 총 337건의 자금조달을 하였음

□ 동북지역 현지법인이 총 투자금액 대비 차입금 비중이 69% 수준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총 투자금액이 452.4백만 달러이고 총 차입금은 311.5백만 달러로 투자금액 대비 68.9%에 달함

○ 중국 전체는 동 비중이 65.1%임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금은 주로 운전자금용으로 활용

- 차입금 용도별로 보면, 동북지역의 현지법인은 주로 운전자금 조달

을 위한 차입이 55.8%이며, 시설자금은 42.9%임

○ 중국 전체는 운전자금 용도의 차입이 42.0%로 동북지역에 비해 13.8% 포인트 낮은 반면, 시설자금 용도의 차입이 53.4%로 10.5% 포인트 높음

– 차입금이 운전자금 중심으로 조달한 것으로 볼 때, 동북지역의 차입 활동이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됨

<표 Ⅲ-15>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자금 용도별 차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타(채무상환 등)		계
		비중		비중		비중	
동북지역	133.6	42.9	173.9	55.8	1.0	0.3	311.5
중국	2,211.5	53.4	1,738.9	42.0	187.8	4.6	4,138.2

□ 동북지역 현지법인은 주로 현지의 중국계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은 중국계 은행에서 51.7%가 이루어지고, 그 뒤를 한국계 은행 9.9%, 국내 은행 7.5% 순임

○ 중국 전체의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은 중국계 은행에서 51.0%가 발생되고, 국내 은행에서 23.5%가 발생됨

<표 Ⅲ-16>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처별 현황

단위: %

	국내 금융	현지 한국	현지금융	제3국 금융	기타	계
동북지역	7.5	9.9	51.7	3.4	27.5	100
중국	23.5	8.2	51.0	9.7	7.6	100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은 주로 국내 본사 담보에 의존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 40건 중에 제공된 담보는 총 43건으로 이 가운데 27건인 62.8%를 국내 본사가 담당

○ 중국 전체도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 건의 61.8%를 국내 본사가 담보 제공

<표 Ⅲ-17> 동북지역 현지법인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현황

단위: 건

		국내은행	현지은행				기타	합계
			한국계	중국계	제3국	계		
차입건수		7	10	13	2	25	8	40
보증처	본사담보	7	10	9	1	20	0	27
	현지법인	0	1	4	1	6	0	6
	현지법인신용	0	0	0	0	0	0	0
	합작선	0	0	2	0	2	0	2
	제3국 은행	0	0	0	0	0	0	0
	계	7	11	15	2	28	0	35

<표 Ⅲ-18> 중국 현지법인 차입금의 담보 제공처 현황

단위: 건

		국내 은행	현지은행				기타	합계
			한국계	중국계	제3국	계		
차입건수		67	71	134	29	234	36	337
보증처	본사담보	67	65	73	10	148	0	215
	현지법인	0	14	47	6	67	0	67
	현지법인신용	0	5	37	7	49	0	49
	합작선	0	2	13	1	16	0	16
	제3국 은행	0	1	0	0	1	0	1
	계	67	87	170	24	281	0	348

4. 결 론

□ 동북지역에 대한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상품수지도 적자로 반전

– 동북지역의 산업기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기계 등의 중후 장대형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대외개방이 일찍 시작된 랴오닝성의 산업구조가 특히 이와 유사하여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의 여파를 쉽게 받음

–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의 하나인 전기전자 산업의 발달 미약으로 전기전자 부품 수출이 둔화되고 있음

– 반면, 동북지역으로부터 곡물, 수산물, 의류 등 1차 산품과 노동집약적 제품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

□ 동북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도 감소 추세

– 동북지역이 경제발전의 상대적 낙후, 개혁개방 지연으로 인한 투자환경 열악, 낮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투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의 투자는 동부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중국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그룹의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아주 미미한 실정임

– 이 때문에 우리의 동북지역에 대한 교역, 특히 수출 증가율이 중국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동북지역이 자본재 생산기지로 부상 가능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점차 증가할 듯

– 동북지역의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동부지역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이 둔화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중후 장대형 산업구조가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과 동북지역의 재건이 2010년에 각 지방정부가 계획한 발전목표에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우리나라의 중후 장대형 산업도 가격 경쟁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인접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동북지역은 우리나라 투자진출 유망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동북지역의 현지법인 경영성과가 국내 본사와 연계되어 있음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경영성과가 중국 전체보다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영업 시작 연도가 상대적으로 중국 전체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해석됨

– 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의 62.8%가 국내 본사의 담보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국내 본사의 경영 안정이 현지법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북지역 현지법인의 자금 조달은 주로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하는 반면, 중국 전체는 시설자금 용도로 조달함. 이는 동북지역이 경영 안정에 주력하는 반면, 중국 전체, 특히 동부지역 진출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됨

Ⅳ. 중국 동북지역 진출사례

1. 중국기업의 제조업 모델

가. 제조업의 특징

□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로 외국기업으로부터 자국시장 재탈환 추진

– 구미나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양산체제를 갖춰 시장의 강자로 부상

○ 중국 내에서 유명 TV 제조기업의 하나인 TCL은 1993년 광둥성(廣東省 惠州)에서 TV를 생산할 당시만 해도 외국기업 제품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 제품 조악

○ 현재는 일본기업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TV를 생산하고 중국 전역을 커버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과 제품 디자인을 통해 자사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내수시장의 강자로 등장

– 그러나 중국의 가전기업의 공통 특징은 TV의 브라운관, 에어컨의 압축기,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등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음

○ 가전기업의 제조비용에서 외부 조달 비율이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이는 필요부품을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조달

하기 때문임

□ 기술도입을 통해 신제품 생산에 적극 나섬

–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과 핵심부품을 도입하여 이를 빠르게 제품 생산으로 연결짓는데 익숙함

– 이 때문에 중국에는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이 많으며, 제품 간의 차별화가 별로 없음

○ 이 같은 현상은 중국 최대의 가전기업인 하이얼(海爾)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제품의 개량과 디자인으로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

– 도입된 기술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어 가격경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제조업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임

○ 시장에서 어떠한 제품이 팔릴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이 많으며, 특히 가전기업이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

□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모듈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모듈화된 부품의 조립 가공 위주

– 컴퓨터의 Lenovo(聯想) 등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부가가치를 주로 창조하는 영역보다는 모니터, 본체 등의 조립 생산이나 애프터서비스 등의 영역에 집중됨

○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된 모듈 부품은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이는 납기단축, 제품가격 인하 등으로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방식으로 DVD 플레이어도 중국 시장의 80%를 중국기업이 장악하고 더 나아가 미국 등 해외로 시장을 확대함

□ 제조기업의 R&D 투자가 대체로 낮음

-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 가전분야에서 주요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0.9~4.8%로 비교적 낮음

  ○ 2000년 기준으로 하이신(海信), 하이얼(海爾), TCL, 캉쟈(康佳), 창홍(長虹) 등의 R&D 투자 비율이 차례로 4.8%, 3.9%, 2.5%, 2.2%, 0.9%임

  ○ 2000년 우리나라 가전기업의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6.14% 수준임

- 가전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가 핵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습득보다는 기술도입을 통한 신제품 생산에 적극 나서는 양상

  ○ 이러한 형태가 제품 제조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한 듯함

□ 그러나 IT 분야는 상대적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전화교환기의 선두 주자인 화웨이(華爲技術)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3.6%에 달하며, 이 밖에 중싱통신(中興通信), 다탕전신(大唐電信)도 각각 12.0%, 11.8%로 낮지 않음

– 특히 최근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국유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임

나. 분야별 특징

□ 기업 구조: 일관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기업구조가 보편적인 국유기업 형태

– 국유기업은 풀 세트형의 생산구조로 기업 내의 기반기술이 과도하게 보호되어 시장경쟁과 유리되어 기술혁신이 어려운 상황임

– 이 때문에 정밀을 요하는 도금, 연삭, 판금, 프레스, 금형, 도장, 열처리 등 분야의 기술이 취약함

□ 부품 조달 방식: 완제품 기업은 통상 복수의 부품 공급자와 거래

– 완제품 기업이 동일 부품에 대해 특정기업과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기업과의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완제품 기업과 거래 관계가 중단될 개연성이 항상 존재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에 각 지방별로 산재해 있는 부품기업으로부터 공급받던 관행 때문이며, 오늘날에는 부품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신제품 개발 관련 금형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

□ 전자부품: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 추세

– 외국인 완제품 기업의 중국 진출 증가와 이에 따른 협력 부품 기업의

진출로 전자부품 시장에서 중국기업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금형: 금형 등 플라스틱 사출물의 경우 정밀도 낮음

- 금형의 정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복제품이 많음

- 그러나 일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금속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 등, 민간기업이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민간기업이 NC 공작기계, 복합 NC 공작기계 등 디지털 공작기계를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1/100 정도의 정밀도 수준의 제품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함

□ 산업 소재: 기술적으로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

- 에어컨용 밸브를 생산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광 픽업(optical pickup), 플라스틱렌즈 등의 소재 공급도 어려운 상황임

  ○ 중국 2위의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생산하는 진허톈(金河田)도 제품의 주된 소재인 플라스틱을 수입에 의존함

□ 생산관리: 기계, 플랜트 등의 최신 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에 적극 나서나 품질 수준은 기계설비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중국은 기술과 함께 해당 산업의 기계설비와 플랜트 등 최신 설비를 도입하지만, 경영관리 시스템에 여전히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잔재가 남아 있음

– 중국기업의 작업구조는 Taylor System*에 기초하여 기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직무는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지만,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업무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반면, 근로자의 행동은 비슷한 임금 수준과 사회주의의 평등 인식 등으로 관리자와의 거리감이 별로 없음

○ 중국기업은 근로자간의 업무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현장 관리자가 개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작업 분담을 결정하고, 한번 결정된 작업 분담의 변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 직무가 결정되면 도제방식으로 특정 분야의 작업에 숙련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만 능력이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효율을 높이는 업무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작업과정의 능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하여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기초로 노동의 표준량을 정하고, 임금을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등과 같은 과학적인 관리기법

□ 품질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가 아닌 결과로서의 검사에 치중하는 경향

– 생산 공정에서 생산과 검사가 대립 개념으로 작용되어 생산 공정에서 품질을 높이려는 인식이 부족

– 부품 공급자는 완제품 생산 기업에 부품 공급액의 일정 금액을 품질 보증금 형식으로 완제품 기업에 위탁

○ 완제품 생산 기업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공급자로부터 품

질 보증금을 수취. 완제품 판매 후 보증 기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될 경우 고장을 초래한 부품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고장 수리, 부품 교환 등에 사용된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부품 공급자로부터 품질 보증금 수취

- 부품 공급자는 거래 관계 지속을 위해 품질 보증금을 위탁하지만, 완제품 생산 기업이 부품 공급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다. 결 론

□ 결론적으로 중국기업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저임 노동력과 결합시켜 비용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

- 기술 도입에 의한 신제품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핵심 부품을 주로 수입하고 이를 조립하여 대량 생산과 판매 체제로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다시 기술도입을 통해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추진

- 핵심부품의 개발, 일관 생산체제 의식이 취약

- 기술 부문과 생산 현장이 유리되고, 또한 직무의 세분화와 특정 직무의 고착화로 인한 기계적인 작업으로 업무 개선이 잘 안됨

-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품질향상보다는 최종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생산관리에 치중

- 가치사슬의 중하위 단계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지만, 소품종 대량 생

산을 통해 이익 추구하는 제조업 모델

2. 일본기업 등의 진출 사례

가. 三洋電器의 소형 가전 생산

(1) 영업 내용

□ 모기업의 브랜드에 걸 맞는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 품목 다변화로 시장 확대 추진

- 다롄싼양(大連三洋家用電器有限公司)은 대형 종합가전업체 三洋電器 그룹의 산하기업으로 1995년에 다롄(大連)에 설립되어 이듬해부터 전기온수기의 중국 현지 판매를 시작한 후, 지금은 전기밥솥, 전자조리기 등 14개 품목의 소형가전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 다롄시정부 산하의 다롄빙산(大連冰山集團)의 온수기 생산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초기 4년간은 온수기만 생산하여 중국 내수 시장에만 판매하였음

- 중국에서의 사업 경험 후 일본 국내 시장을 위한 상품도 중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밥솥, 전자조리기 등 14개 품목의 소형가전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생산제품의 25%는 일본으로 수출함

- 부품의 현지 조달비율은 90% 수준임

(2) 판매 전략

□ 목표 고객과 경쟁기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품 생산

- 생산제품의 판매는 어떤 소비자와 경쟁업체를 타깃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우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눈으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 따라서 중국 전역의 대형백화점, 가전양판점 등은 물론 월마트, 까르푸 등의 대형 슈퍼마켓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만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모기업인 三洋電器 브랜드에 걸 맞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

- 주요 판매지역은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다롄(大連) 등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 한정. 이는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소비자의 소득이 낮고 제품의 구매층이 적은 반면, 애프터서비스 체제의 확립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임. 게다가 가격이 싼 제품을 구입하는 층이 많은 농촌의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임

□ 다롄과 상하이의 영업거점 이외는 영업담당자의 출장 형식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대리점을 통해 소매점에 제품 공급

- 영업 거점은 다롄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도시는 영업담당자가 2~3개월 출장 형태로 영업활동을 함. 판로개척은 전국의 대형 소매점의 확대를 목표로 함

○ 대형 소매점은 입점 기업에 고액의 매장 임대료 등의 대가를 요구함

– 생산제품은 대리점을 통해 소매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보통 대리점 하나가 30~50 개의 소매점을 관할함

○ 소매 형태별 판매 비중은 백화점이 50%, 가전양판점 30%, 슈퍼마켓 20% 등임

□ 하이얼(海爾)과의 제휴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하이얼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

– 모기업인 三洋電器와 중국의 대형 가전기업인 하이얼(海爾)의 제휴로 인해 전기밥솥 등 일부 품목은 하이얼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실적도 양호함

○ 하이얼의 매장은 지역 밀착형의 판매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제품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대형 소매점의 고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 루트에 따른 고객의 상호 침식은 그리 크지 않음

□ 외상 매출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의 선납이나 현금 판매 방식으로 전환

– 초기에 생산제품의 위탁판매로 인해 외상 매출금이 크게 증가하는 어려움으로 현금흐름(cash flow)이 적자였음

– 그 후 위탁판매는 일절 하지 않고 선납이나 현금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신뢰할 수 있는 극히 소수의 대리점에만 1~2개월의 어음으로 판매

□ 운송도중의 제품 파손을 물류회사가 부담하도록 운송 계약 체결

- 물류 면에서 생산제품의 유통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공장 출하 시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공장 출하 후의 파손이나 분실 등은 물류회사가 책임지도록 계약 체결

□ 근로자와의 정보 공유

-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하여 경영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5년의 매출 목표를 10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근로자가 모두 인지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개함

나. 洋馬農機(中國)의 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 생산

(1) 영업 내용

□ 수출을 통한 농업기계 판매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법인 설립

- 1985년에 중국이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랴오닝성의 농기관리국에 콤바인 40대를 수출한 이후 매년 10대 정도의 농업기계를 수출해오던 중, 성정부가 농기계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에서 농기계의 생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4년에 랴오닝성에 농기계 생산 법인을 설립

- 초기에는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콤바인 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나, 1998년부터 중국 시장에 맞는

콤바인을 개발하여 판매

○ 생산대수는 2001년 1,000대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약 1만 개에 달하는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이 70~80%에 달함

□ 지역적으로 광활한 국토로 인해 수확시기가 다르고 농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 등 중국 농업 분야의 이해가 판매 확대에 도움

– 일본에서는 콤바인 등 농업용 기계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지만, 중국에서는 구입자 중 농민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벼나 보리를 수확해주는 '출장 수확업자'가 70%를 차지

– 보리 수확기는 4월 중순~6월 하순의 3개월간, 벼는 6월~11월 중순의 6개월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확기가 진행됨

○ 출장 수확업자는 5명 정도의 그룹으로 서쪽으로는 창쟝(長江) 상류의 쓰촨성(四川省)에서 동쪽으로는 산둥성(山東省), 남쪽으로는 광둥성(廣東省), 광시자치구(廣西自治區)에서 북쪽으로 헤이룽쟝성(黑龍江省)까지 이동하며 벼나 보리를 수확함

○ 출장 수확업자는 현금 수입이 있는 목수, 상점주, 이주 노동자가 콤바인을 구입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동사의 콤바인 대당 가격은 20~23만 위안으로 중국기업이 생산하는 콤바인 가격의 5배로 중국의 일반적인 가옥 하나에 상당할 만큼 비쌈

(2) 판매 전략

□ 현지 실정에 맞게 기능은 축소하고 견고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 공급

- 중국의 콤바인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타이어식 콤바인으로 벼나 보리를 먼저 베고 난 후 잘라 낸 전체를 기계에 통과시킨 후 체질하여 씨알만 남기는 방식이며, 타이어식 바퀴이기 때문에 경작지가 고른 건조된 밭에서만 주로 사용이 가능

- 동사는 농작물을 베어내 이삭 부분만을 기계에 통과시켜 탈곡하기 때문에 씨알의 손상이나 결손이 줄어들고, 타이어가 아닌 무한궤도식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논의 벼 수확도 가능

- 콤바인의 가동시간은 일본에서는 농가 자가 수확용이기 때문에 최장 연간 60~80시간 정도이지만, 중국에서는 출장 수확업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의 10배인 800시간이나 됨. 이 같은 과도한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강판의 두께를 늘려 강도나 내구성을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2배로 높이는 한편, 이동 중의 편이성을 고려한 자동제어 장치 등 복잡한 기능이나 캐빈 등 안전과 관련이 없는 설비를 제거해 단순화시킴

- 중국에서는 보리의 기계수확률이 70% 이상인 반면, 벼는 1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벼가 보리에 비해 수분이 많아 탈곡손실이 많고 선별이 어렵기 때문임. 또한 타이어식의 콤바인으로는 물이 있는 논에서 작업하기 곤란한 점이 작용

- 일반적인 중국의 보리 수확용 콤바인으로는 벼의 탈곡이 거의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동사의 벼 수확용 콤바인이 성장할 여지는 크다고 판단함

- 콤바인이 자가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능보다는 중국 실정에 맞게 높은 품질과 내구성을 특별히 강조한 결과 높은 판매 가격에도 불

구하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함

□ 물품 대금 입금 후 상품 인도와 함께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실시

– 콤바인은 철저하게 물품대금 입금 후 인도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금 누증을 차단함

○ 초기에 콤바인 100대를 선수금 90%, 1년간 무상 AS 종료 후에 나머지 10%를 받기로 계약을 하고 인도한 적이 있는데, 잔금 인수 기간에 대금을 회수하러 갔더니 개인적으로 콤바인 취급설명은 받았지만 공동으로 하는 취급설명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당한 적도 있음

– 장거리 이동과 오랜 가동으로 농기계가 쉽게 고장이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밀착형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농기 구입자에 대해 농기 사용 전 강습은 물론 자체 점검, 정비 등의 연수를 실시. 또한 1년간의 무상 수리 기간 동안에 농기계의 교환, 반품을 보장하고 48시간 이내 출동 서비스 실시

○ 농기계가 가옥 한 채에 해당하는 고가품이고 보리와 벼의 수확 시기에 이동하는 출장 수확업자가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사와 특약점이 팀별로 출장 수확업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무상수리나 유상으로 부품교환을 실시

○ 농기계 사용 전 강습과 실기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함

다. 富士和機械工業의 자동차부품 생산으로 자가용 시대 대비

(1) 영업내용

□ 중국시장을 잘 이해하는 대만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 시장의 성숙화에 따른 일본 수요 저하, 엔고에 따른 수출신장 둔화와 수입차 급증이라는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단순히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심의 경영으로는 장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에서 활로를 찾게 됨

- 합작 파트너인 대만의 六和機械는 중국에서 성공한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1992년 11월에 장쑤성(江蘇省)에서 알루미늄 휠 등을 생산하여 중국의 디이자동차(第一汽車)나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등의 대형 자동차 기업에 납품함

- 六和機械는 주조 분야에, 栃木富士産業은 기계 가공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로 상승효과를 낳을 수 있고,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주물, 기계가공 두 분야를 취급하는 기업이 적다는 점에서 합작을 결정

  ○ 六和機械는 중국 사정에 밝고 중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점이 합작을 결정하게 된 배경임

- 중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5년 4월에 사내에 중국 준비실을 설치하여 검토를 시작하고, 11월에 합작법인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에 경영진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富士和機械工業을 설립. 중

국 진출의 검토를 시작하고 현지법인 설립까지 불과 1년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당시 수입 기계설비에 대한 면세조치가 철폐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임

– 1997년 4월에 기계가공 공장이, 같은 해 7월에 주조 공장이 가동되었고, 지금은 주철제품, 기계가공 및 조립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주조능력은 연간 생산량 2,000톤,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비율은 90%이고 종업원은 800명 임

□ 공정별 투입 기계를 달리하며 비용 절감

– 동사의 공작기계는 대부분 일본제였지만 2000년부터 신규 구입은 기본적으로 대만제로 교체하여 지금은 200대가 넘는 설비의 90%가 대만제로, 투자비용을 줄이고 있음

○ 조립가공이나 작업중간 단계에서는 대만제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최종 공정만 일본제를 사용하여도 품질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

○ 공작기계의 조달에는 六和機械의 구매부문을 활용함으로써 대만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음

(2) 판매 전략

□ 합작 투자자와 생산과 판매의 분업화 추진

– 생산제품의 판매는 일본 측은 일본계 기업을, 대만 측은 유럽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을 담당하고 있음

- 영업 인력은 대만 측의 부총경리와 현지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만 측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고 여기에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적용한 인사관리에 의해 매출이 확대되고 있음

  ○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GM, Ford의 아시아 담당 구매자의 동사 방문 등으로 괄목할만한 매출 신장으로 이어짐

- 완성차 메이커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현금 입금 후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있으나, 이의 회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1997년 매출액이 642만 위안에서 2000년에는 1억 위안으로 그리고 2003년 4억 8,000만 위안으로 급증함. 2000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시현하였고 2003년에는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흑자기조가 정착됨

- 초기 운영자금을 모기업의 보증으로 중국에서 차입하였으나, 흑자로 전환되고 동사의 성장성을 인정한 중국 현지은행도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음

- 공장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80%에 달했으나, 그 뒤 중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지금은 현지 판매가 75%로 높아짐

- 거래처로는 토요다, 닛산, 혼다 등 일본계 기업, GM, Ford 등 유럽계 기업과 중국기업 등 약 50여개에 이름

라. 富奧石川島過給機의 자동차 부품 터보 과급기(turbo charger) 생산

(1) 사전 조사

□ 투자 진출전에 중국 관련 기관의 방문을 통해 시장과 입지에 대한 자문

- 동북지역에서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중국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재건 정책의 주요 내용 청취

- 2003년 10월에 투자자의 최고 경영진이 중국 방문 시에 베이징의 일본계 기업의 상사 대표, 중국 정부(商務部) 등과의 면담을 통해 동북지역의 상황과 사업기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예전의 공업기지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

□ 선양(瀋陽), 다롄(大連)의 기업 방문과 현지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동북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함

- 방문 결과 동북지역이 기계장비 제조업 등의 중공업 기반과 경험을 갖추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

- 선양의 공업단지인 테시(鐵西)지구의 기계공장 방문 외에 자동화 설비 등을 연구하고 있는 중국 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의 효율화, 상품의 통일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장비 등 중공업 분야의 자동화가 동북지역 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됨

○ 선양의 공작기계 기업에서 10여대의 3차원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연속 생산을 목격하였고, 다롄에서는 선박 건조기업을 방문하고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선박 건조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됨

○ 외국자본과의 경쟁보다는 중국 기업그룹끼리의 경쟁이 더욱 거세어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동북지역의 지식수준은 높고 일본에 대한 친근감도 강한데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인재도 많으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

- 물류 면에서는 고속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으나, 하얼빈~다롄 간에 10시간 정도가 필요한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철도는 편수가 적으므로 편이성 결여의 문제도 있음

(2) 영업 내용

□ 합작선에 주로 생산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점차 동북지역 자동차기업으로 확대 추진

- 石川島播磨重工業은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에서 디이자동차(第一汽車) 산하의 부품 총괄회사인 푸아오자동차부품(富奥汽車零部件) 등과 합작으로 자동차용 터보과급기(turbocharger) 생산을 위한 법인을 2004년 1월에 설립

- 투자자는 장쑤성(江蘇省 江陰市)에서 1997년부터 터보과급기를 생산하여왔으나, 중국의 자가용 구입이 증가하는데다 동사의 생산제품이 고출력이면서 공해방지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더

욱 확대되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 최대 시장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창춘에 추가 진출함

○ 터보과급기는 디이자동차가 생산하는 트럭과 승용차의 디젤엔진에 탑재되고 있음

– 터보과급기의 경쟁기업으로는 미국의 Garret, 영국의 Holset, 일본의 기업 등임

(3) 판매 전략

□ 국유기업 개혁과 해외진출에 관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정부나 관련 기업과의 유대 관계로 판로 개척

– 일본계 기업, 유럽계 기업에 관계없이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형식으로 사업을 전개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해외 진출에 어드바이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함

– 자본금은 1억 2,300만 위안을 투자하여 2004년 가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초년도 약 2만대, 2006년 약 30만대, 2008년에는 약 60만대의 터보과급기 판매를 예상

마. 瀋陽古河電纜의 초고압 케이블과 연결부품의 생산

□ 지속적인 기술 우위로 초고압 케이블 시장 주도

- 1995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7년에 공장가동을 시작하여 전력공급의 대동맥인 초고압 케이블(66kV, 110kV, 220kV)과 이의 연결 부품을 생산

- 당초 중국과의 합작법인으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에 중국 측 출자분을 인수하여 단독투자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총 투자금액은 5,217만 달러임

- 중국에서 초고압 케이블의 판매는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 인하를 강요받는 현실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고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

- 특히 중국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수주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아직까지 초고압 케이블의 기술적 우위로 인해 중국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함

-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수요가 증가한데다 송전 손실이 적고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한 고품질의 고성능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본사(古河電工)의 기술력이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음

바. 쟈퉁타이어(佳通輪胎(中國)投資有限公司)의 상장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

(1) 국유기업 인수

□ 경매를 통해 상장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

– 상하이에 설립된 싱가포르 GITI의 중국 지주회사인 쟈퉁타이어가 2003년에 중국 국유 타이어기업으로 증시에 상장된 헤이룽쟝성 무단쟝(牧丹江) 소재 화린타이어(樺林輪胎)의 지분 44.3%를 9,789만 위안에 인수함

○ GITI는 제조, 부동산, 금융, 소매 등에 종사하는 싱가포르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각지에 80여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음

– 화린타이어는 1999년 8월 증시에 상장된 뒤, 최대 주주인 화린그룹(樺林集團)이 지분 44.3%를 중신스예은행(中信實業銀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차입금을 만기인 2002년 8월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됨

○ 중신스예은행이 채무자를 법원에 제소하여 경매 판결이 결정되었고, 2003년 6월부터 2차례 경매에서 모두 유찰되고, 3차 경매에서 쟈퉁타이어가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음

○ 중국에서는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가 10%씩 체감됨

– 외국기업의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 특히 상장기업의 지분 인수가 가능했던 것은 2002년 '외국자본을 이용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잠정규정'(利用外資改造國有企業暫行規定), 2003년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의 인수합병 잠정 규정'(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暫行規定),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국가 소유 주식과 법인 주식의 양도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 '국유자산 관리잠정 조례'(國有資産管理暫行條例) 등이 제정되었기 때문임

(2) 영업 내용

□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생산 거점 확보로 적극적인 영업활동 가능

- 쟈퉁타이어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1993년에 처음으로 안후이성(安徽省)에 타이어 공장을 설립한데 이어 푸젠성(福建省), 충칭(重慶), 닝샤자치구(寧夏自治區) 등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중국에 총 6개의 타이어 법인이 있음

- 쟈퉁타이어는 동부지역을 커버하는 안후이성, 남부지역의 푸젠성, 서남부의 충칭, 서북부의 닝샤 등에 타이어 공장을 갖추었으나 동북지역에는 이렇다할 거점이 없는 상태에서 디이자동차 등의 자동차 기업이 많은 동북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해왔음

  ○ 화린타이어의 3차 입찰에서 쟈퉁타이어 외에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에 이들이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쟈퉁타이어의 단독 입찰로 끝이 남. 사전에 화린그룹, 무단쟝시정부와 쟈퉁타이어간 상호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음

- 중국에는 세계적인 타이어 생산기업인 프랑스의 Michelin(米其林), 미국의 Goodyear(固特異), 일본의 Bridgestone(普利斯通) 등 외에

한국의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이 진출해 있음

– 쟈퉁타이어는 중국 전체 타이어 생산의 16.4%인 18.4백만 개를 생산하여 이 가운데 12.2백만 개를 현지에서 판매하고 6.2백만 개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가. ○○산전의 내수용 배전반, 변압기 등의 생산

(1) 영업 내용

□ 공장 설립 증가에 따른 배전반 등의 전기 관련 제품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출

– 중국 민간기업의 지위 보장에 따른 민간기업의 설립이 증가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로 인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배전반, 변압기, 부하개폐기 등의 전기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해 2000년 3월에 랴오닝성의 다롄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공장 가동

– 생산제품은 초기에 중국기업에 70%, 한국 투자기업에 30%를 판매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 투자기업에 2/3를 판매함

□ 중국기업 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에 역점

– 배전반 등의 전기제품 생산은 외국계 기업으로는 ABB, Siemens, Schneider 등의 고급 브랜드가 있고, 동사는 중간 수준이며, 하위에

중국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 중국기업의 품질 수준은 최하위이지만, 중국 전력국의 산하 전기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력국이 전력을 공급하면서로 이들 산하기업으로 하여금 배전반 등의 전기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더욱이 동사는 원부자재의 50% 정도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중국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음

  ○ 이 때문에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가격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주문량이 많아 지금은 선별 수주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2003년에 2,000만 달러였고 2004년에는 목표인 2,5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한 3,0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

- 2003년부터 시작된 동북지역 재건으로 인해 향후 역내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

(2) 판매 전략

□ 중국기업은 현지인, 한국 투자기업은 파견 직원으로 영업의 역할 분담

- 영업지역은 경제가 발전한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 동부 연해지역 중심임. 초기에 서남지역에도 영업점을 두었으나 사업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밝지 못하여 철수한 상태임

- 영업 인력은 3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 직원 4명이 다롄 법인에 1명, 베이징 2명, 상하이 1명씩으로 한국 투자기업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나머지 26명의 현지인은 중국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

□ 우량 고객 발굴을 위해 정부발표 자료 적극 활용

– 중국기업의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할 경우 기업 관련 정보도 제대로 얻기 어려우면서도 비용이 무척 비싼 편임

○ 이 때문에 중국기업은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발굴

○ 한국 투자기업은 국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문과 인터넷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

– 판매는 대리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과 계약하고 있으며, 물품 대금은 계약 체결 시에 30%, 중도금 60%, 전기시설 가동 후 10%이며 일반적으로 가동 후 10%는 하자 보증금 성격임

○ 매출채권 회수는 통상적으로 100일 정도 소요되나 중국기업의 경우 150일 정도 소요됨

나. ○○개발(주)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1) 영업 내용

□ 중국 부동산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한국식 아파트를 접목하기 위해 진출

–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 진행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이 육로로 진행될

수 있고, 선양(瀋陽)이 동북지역의 주된 거점 도시인데다 중국이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형 주택 공급이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2년에 등록자본금 1,890만 달러의 부동산개발 단독투자 법인(愛斯阿爾房産開發瀋陽有限公司)을 설립

- 부동산 개발지는 선양 시가지 남쪽의 훈허(渾河) 연변에 위치하며 공항과 단둥(丹東) 고속도로에 인접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함

- 선양시의 훈난(渾南) 신구와 토지(58,000m2)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5월 아파트 11개 동 1,472세대의 공사를 착공하고 2003년 6월에 분양 실시

○ 토지 사용권 취득 등 정부기관과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반 인허가가 현지 사업의 관건임

<표 Ⅳ-1> 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주요 인허가 내용

	주요 내용	인가 기관
2002. 4	건설용지 계획 허가(建設用地規劃 許可證)	瀋陽시 渾南新區
2002. 5	외국인 투자 인가(外商投資企業 批准 證書)	瀋陽시정부
2002. 12	건축 시공허가증(建築工程施工 許可證)	瀋陽 고신기술개발구
2003. 12	주택 분양 허가(商品房預售 許可證)	瀋陽시 부동산관리국
2004. 3	토지 사용권 취득(國有土地 使用證)	瀋陽시정부

- 건축 시공허가증에는 시행자인 기업의 명칭 외에, 시공자(중국 건설기업: 大連 소재), 설계자(중국 설계기업: 瀋陽 소재), 감리자(중국

감리기업: 北京 소재)가 모두 명기되어 있음

○ 한국형 아파트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한국 측의 설계사와 중국 현지의 설계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설계함

□ 부동산 개발과 분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후 2003년 6월에 처음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 성공률이 20% 수준에 불과

○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단지의 분양에도 수차례로 나누고 분양가도 점차 높여가는 방식으로 분양하는데 반해, 동사는 현지 분양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괄 분양을 실시

○ 또한 분양 시에 인테리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는데, 동사는 인테리어를 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 실시

○ 이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초 분양 계약을 했던 물량까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

○ 결국 나중에 1㎡ 당 초기 분양가보다 1,700위안 낮은 3,300 위안에 분양을 실시함

– 등록자본에 필요한 자금 외에 본사 보증(standby L/C) 등으로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2,130만 달러를 조달하였고, 일부는 공정이 진행되는 건물을 담보로 현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위안을 조달하였음

○ 5개동의 분양으로 200만 달러를 회수하였음

– 11개동 가운데 나머지 6개동은 금년 6월에 완공되게 됨

– 한편, 동사는 1,400여 세대 외에 2기(아파트), 3기(아파트), 4기(국제비지니스 센터 등)를 지속해서 건설할 예정이며, 특히 4기 국제비지니스 센터는 코엑스보다 더 큰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

(2) 분양 전략

□ 당장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차장과 녹지비율을 충분히 확보

– 선양의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지만, 고급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적 하에 39평, 43평, 48평, 55평, 66평, 67평, 78평, 93평 등으로 대형 평형 중심으로 건축

– 자가용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전체 세대수의 2/3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갖춤

○ 18~30층 규모에 용적률 365%를 적용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녹지비율이 78%에 달함. 한편, 주차장은 주변지역보다 흙을 높게 돋아 지상 진입 도로와 거의 비슷한 높이를 유지함

○ 지하 주차장은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입주자에게 차량 1개 주차 면적당 8~9만 위안 수준에 분양함

– 분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홍콩의 분양 대행사를 위촉하고, 분양 도우미, 분양 책임자, 총경리 등에게 분양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함

다. ○○전자의 Film 콘덴서용 금속 증착필름 생산

(1) 영업 내용

□ 개방 지연에 따른 주민 의식 저조로 인한 불량률 축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생산 효율 제고

- 에어컨, 선풍기, 세탁기 등의 핵심 부품인 Film 콘덴서용 금속 증착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창춘(長春)의 경제기술개발구에 1999년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

- 증착기 2대를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착기 1대당 한국은 월 30톤을 가공하지만, 동사는 35톤을 가공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생산효율 문제는 해소됨

- 불량품을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해 벌금 부과를 수용하겠다는 자필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불량률을 축소시키고 있음

  ○ 내규에 이와 같은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함

□ 개방 지연과 낮은 의식으로 인력 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물류비도 적지 않음

- 개방 지연으로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료들의 보수적인 의식이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창춘이 공업도시이기는 하지만 전기전자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종업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롄을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매출액의 1% 정도 차지함

- 동포 관리가 쉽지 않은데, 종업원 중에서 3명을 채용하여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는데, 동포들이 거짓말을 자주하여 쉽게 믿음이 가지 않으며, 주변에 동포를 잘 못 고용하여 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

- 따라서 동포를 관리자로 육성하기보다는 한족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생산 관리를 담당시키고 있으며, 동포는 통역 수준의 업무에 한정시키고 있음

□ 중소기업이지만 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생산제품의 70%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

- 생산 제품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기업에도 납품하고 있으며, 30%는 대만, 홍콩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연간 매출은 500만~600만 달러이고 2000년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이익을 실현함

- 주문량이 폭주할 때에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며, 초기와는 달리 불량률 축소와 납기 준수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 지금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주말 없이 1일 12시간 2교대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

□ 종업원을 가족과 같이 대하는 가족경영과 철저한 성과급제 실시

- 복지후생과 관련한 경비에 인색하지 않으며, 성과급제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공장 내에 샤워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이 근무가 끝나면 샤워할 수 있도록 하고, 비누, 화장지 등을 무제한 공급하고 있으며, 간식으로 우유도 제공함

– 기본 급여는 낮게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초과달성분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 기본 급여에 버금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은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인식하에 그 이상으로 잘 지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무엇을 할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총경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따라하도록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음

– 근로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전에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내규 등 관련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2) 판매 전략

□ 공무원들과의 체육활동을 통해 거래선 확보

– 공무원들과의 테니스 등 체육활동을 통해 이들로부터 중국기업 등을 소개받는 등 거래선 확보를 위해 각종 인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중국 관료들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중국 명절에는 반드시 한국산 선물을 준비해 제공함으로써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음

-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한다는 인식 하에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함

○ 기업의 발전이 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인 정부기관, 동포 사회의 문화활동 등에 참여하여 이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음

- 또한 예전에 재직했던 기업을 통해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납품에도 적극적이며, 중국 기업에 대한 거래선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직원들을 적극 활용함

□ 유통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고려 물품대금 선 입금 후 제품 공급

- 현금 수취 후 제품을 공급하는 영업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외상 거래를 하기도 함

- 중국 유통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매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 최대 가전기업인 하이얼(海爾)에 대한 납품도 수개월 뒤에 결제를 해주거나 자사 상품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며,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수개월 뒤에 반품을 하기도 함

- 원자재는 본사에서 수입하고 다롄항을 통해 통관함. 원자재 수입을 위해 Standby L/C를 개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예금을 예치하도록 은행에서 요구하며 예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L/C 개설이 불가함

라. ○○가구의 가구 전시장 임대

(1) 영업 내용

□ 수차례의 쓰라린 실패 경험에서 값진 교훈 체득

- 투자자는 1993년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수요가 증대하게 되면 하얼빈(哈爾濱)의 경차 생산기지인 하페이자동차(哈飛汽車)와 창춘의 디이자동차에 에어클리너 등의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80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그러나 품질 미흡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상관행 등으로 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청산 실시

-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방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린성(吉林省 延邊)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옌볜(延邊)의 경제발전 낙후와 젊은층의 도회지 진출에 따른 동포 인구의 감소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하여 아파트 사업도 실패함

□ 실패 경험을 토대로 가구 매장 임대사업으로 재도전

- 두 차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매장 임대사업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영역인 가구 매장 임대사업을 하얼빈에서 합작하게 됨

- 3층 규모의 매장을 건설하여 1~2층 매장, 3층 사무실로 활용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매장은 거의 임대가 완료된 상태임

- 대형 가구 매장으로 임대가 순조로워 연간 200만 위안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하얼빈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우리 투자기업임

- 중국 가구 매장은 대형화가 필수인데 동 사업장은 하얼빈에서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큰 매장으로 관련 기업이 집중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점이 임대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투자자는 중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곳 중의 하나가 헤이룽쟝성(黑龍江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헤이룽쟝성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기업 1,400개 가운데 50여개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생존율이 3.6%에 불과한 실정

  ○ 특히 헤이룽쟝성의 한국상회가 개소한지 14년 동안 상회 회원사가 40개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들 회원사마저도 지금까지 회원사로 남아 있는 기업이 4개에 불과함

(2) 사업 실패 원인

□ 진출 지방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진출

-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데 성급하게 진출

  ○ 개방이 늦어 시장경제 의식이 미흡한데다 대부분이 대형 국영기업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중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음

  ○ 다롄,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의 투자환경을 100이라고 할 때, 헤이룽쟝성은 30 정도에 불과. 일반적으로 이들 도시는 one stop service로 3일이면 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헤이룽쟝

성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며, 개발구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들은 진출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모르면서 과감히 들어와 어려움을 겪음

○ 헤이룽쟝성 자체적으로 화물 통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료들이 통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다롄에 가서 통관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상황의 이해보다는 법인 설립을 서두름

○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업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

○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피아노 생산을 위해 진출한 기업이 단순하게 삼림이 많기 때문에 피아노 생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강도가 낮아 피아노용으로는 부적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순하게 인건비가 싸다는 것과 동포가 많아 친근감이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해 투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함

○ 내륙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산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높은 물류비가 부담이 되고, 내수 판매를 하고자 하면 시장경제 의식 미비로 인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게 됨. 헤이룽쟝성에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적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관료 등이 눈에 보이는 기업 경영환경을 중시하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 이를테면, 법적 환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음

○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미약

□ 나 혼자만이 아는 정보인 것처럼 비밀스럽게 정보 취득

– 독불장군식 정보 취득

○ 투자 진출을 위한 정보 취득에 있어 한국 상회와 같이 비교적 객관화된 루트를 찾기보다는 인맥을 통해서 몇 개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방문을 통해 얻은 첩보 수준의 정보를 취득하고 마치 그 정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득의양양 하는 경우가 많음

□ 파트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기업 경영

– 경영관리 방식도 주먹구구

○ 투자자가 주도적으로 직접 경영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만, 중국어 구사능력이 뒤받침 되지 않고 현지 사정에도 어둡기 때문에 합작 파트너나 동포에 의존하며 후선으로 물러나 마치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님처럼 생활하며 경영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음
○ 사업 시작 후에는 경영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짐
○ 언어 문제로 인해 내부 관리에만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게 되어 합작파트너, 정부 등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즈니스가 원활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경제적 낙후와 어설픈 경제체제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여서인지 법이나 제도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음
○ 진출한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제품은 범용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쉽게 유사품에 노출됨

<표 Ⅳ-2> 중국 진출기업 사례별 경영전략

	품 목	경영 전략
三洋電器	소형 가전	· 모기업 브랜드 활용 · 목표 고객과 경쟁기업 설정 · 중국기업과 제휴로 동 기업 판매망 활용
洋馬農機	콤바인	· 농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 · 기능보다는 견고성과 내구성 중시 · 고객 밀착형 AS
富士和機械	자동차 부품	· 대만기업과 공동 진출 · 공정별 투입기계 구분 · 대만은 유럽과 중국계, 일본은 일본계 기업으로 판매 분업
富奧石川島過給機	터보 과급기	· 관련 기업 소재지로 진출 · 국유기업 개혁과 해외진출 노하우 전수로 판로 개척
瀋陽古河電纜	초고압 케이블	· 기술적 우위로 승부
佳通輪胎	타이어	· 자가용 시대 대비 생산거점 다변화
○○산전	배전반	· 현지인은 중국계, 한국인은 한국계 기업으로 영업 판매 이원화 · 현지 판매시 정부자료 적극 활용
○○개발	부동산 (주택)	·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장과 녹지비율 확대
○○전자	콘덴서용 증착필름	· 한족을 관리자로 육성 · 가족경영과 성과급제 실시 · 대금 선 입금 후 물품 공급
○○가구	가구 매장 임대	· 매장의 대형화

Ⅴ. 결론: 우리기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전략

1. 제조업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제조업 중심의 진출 모델

□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공급

- 중국기업은 기술 도입을 통해 선진국의 해당분야 선도기업과 신제품으로 경쟁하는 한편, 이를 대량 생산으로 연결하여 가격 인하 경쟁으로 자국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이 가전과 같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가전시장에서 점유율 상위에 랭크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음

□ R&D, 인력, 부품 등의 현지화로 중국기업에 대응

-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에 의한 현지 R&D 센터를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 확보

- 관리 인력의 현지화와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률 확대로 가격 경쟁력 확보

□ 경쟁 방식 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생 방식 고려

-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생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음. 이는 중국기업과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임

– 지금까지 중국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중국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외상매출금 회수 어려움 등을 고려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기업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하이얼, TCL, 캉쟈 등과 같은 가전 분야의 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

– 상대 국가에서 제휴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한국의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하이얼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국내에서 한국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하이얼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비가격 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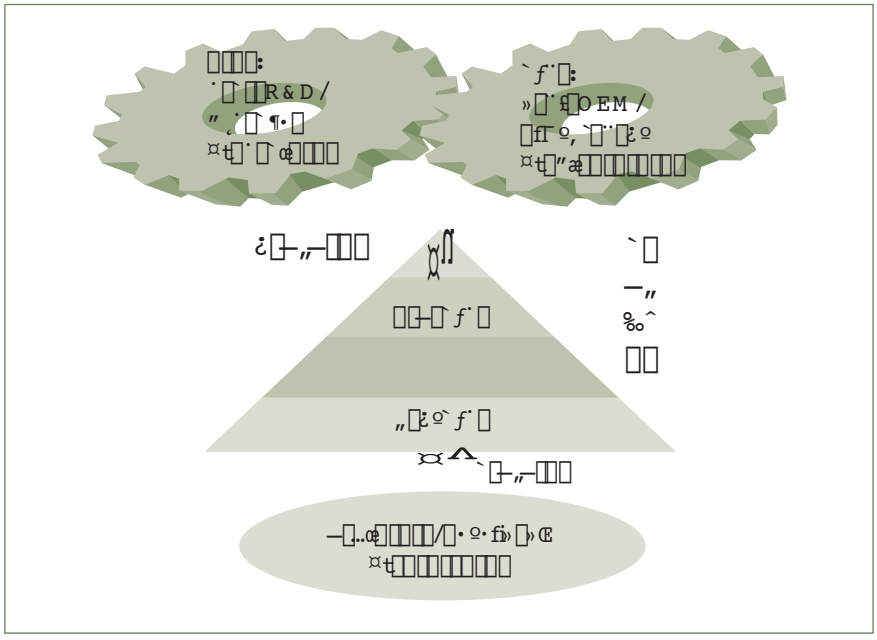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 제품의 선도 소비자를 겨냥한 진출에 역점

– 중국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전략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 계층에서 top down 방식으로 시장 확대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가, 파견 주재원, 건물 건축 및 임대 등 제반 비용 면에서 중국기업과의 원가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

– 중국기업과의 품질 경쟁을 지속하는 한편, 유통망 등의 활용을 위한 제휴를 바탕으로 시장 확대 추진

<그림 Ⅴ-1> 중국 시장진출 제조업 모델



나. 산업별 진출 전략

□ 발전설비, 철도차량, 철강, 공작기계 등 자본재 중심으로 진출

- 중국정부가 동북지역을 중국 자본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자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특히, 동북지역의 산업이 IT산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철강,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북지역이 향후 자본재 생산기지로 부상할 경우 우리나라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동북지역으로의 진출은 이들 산업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 내수시장과 제3국 시장의 개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IT 산업 관련 분야는 다롄, 선양, 창춘 중심으로 진출 모색

– 비록 IT 산업 분야의 기반이 미흡하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이 다롄과 선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IT 관련 투자기업이나 일본계 기업도 동북지역에서는 이들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 다만, IT 산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창춘으로의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창춘이 정보기술, 광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소프트웨어, 과학용 계측기기 등의 IT 산업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임

□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다롄과 선양 연변으로 진출 고려

–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다롄과 선양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산업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의 의식개혁과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진전될 경우 창춘, 하얼빈 등지로 진출을 모색할 수도 있음

□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진출 모색할 수 있음

– 동북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상위가 곡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해외수입이 많아질 수 있으며, 이 때 동북지역으로부터 쌀, 콩 등의 수입이 용이할 수 있음

- 특히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 중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수입 쌀의 용도를 다양화 시킬 수 있음

- 경의선 철도 개통시 육로를 통해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점 등 운송수단의 다양화도 가능할 수 있음

다. 대상 고객별 진출 전략

(1) 공통사항

□ 진출 전 관련 산업이나 지방 또는 지역 경제발전 전략 이해

- 진출 지역 소재 지방정부와 기업의 방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련 기관의 방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해당 산업과 지역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계획 수립

  ○ 富奧石川島過給機가 자동차 부품인 터보 과급기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장차 법인이 소재할 동북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무부는 물론 중국 정책결정 자료를 제공하는 중국사회과학원 등을 방문하여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재건에 대한 의지 확인

  ○ 또한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방문을 통해 신제품과 기술개발 수준 파악

□ 외상매출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의 선납이나 현금 판매 방식 고려

- 중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통된 어려움 중의 하나가 외상매출금

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중국에서 경영 정상화를 이룬 기업들의 대부분이 앞의 사례에서처럼 물품 공급 전에 대금의 선 입금이나 현금 지급방식으로만 물품을 공급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三洋電器와 같이 신뢰가 쌓인 이후에 극히 소수의 대리상에게만 1~2개월의 어음으로 판매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2003년 말 일본 무역진흥회(Jetro)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컨설턴트 회사인 Javelin Investments의 Kim Woodard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은 한결 같이 철저하게 물품 대금을 선 입금 내지 현금 결제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GM도 자동차를 현금 입금 확인 후 출고한다고 중국에서의 외상매출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

□ 적극적인 인재 육성과 발굴이 성공의 열쇠

– 중국 현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면서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취약한 인력의 현지화에 적극 나설 때임

○ 지린성 창춘의 ○○전자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인이며, 동포 인력은 통역에 한정시키고 주요 관리직은 한족으로 임명하고 있음

– 미국계 기업의 성공 요인도 중국 현지에서 5~10년 동안 유능한 관리자들의 성장과 활약 때문에 가능

○ Javelin Investments의 Kim Woodard도 중국에서의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를 유능한 현지인을 거금을 들여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

○ 특히 미국계 기업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일본계 기업의 파견자와 같은 수준의 파격적인 급여를 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근무 또는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충성심을 끌어올린다고 함

□ 지속적인 비용 절감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 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비용절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대만계 기업이며, 대만계 기업은 본사와 독립적인 경영을 표방하며, 철저하게 비용 감축을 하여 단위당 생산비용이 최저라고 알려짐

○ 관리자의 현지화와 원 · 부자재의 현지화로 비용 감축

– 관리자의 현지화를 통해 파견 관리자의 주재원 비용 절감이 가능

○ 지린성 ○○전자의 경우 관리자로 사장 1명만을 파견하고 한족을 관리자로 발탁하여 효과적으로 비용 절감

□ 전국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생산 거점의 다양화

– WTO 가입을 전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입제한이 철폐되면서 일견 중국이 단일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으로 통합된 시장이 나타나지 못함

– 게다가 중국이 지역적으로 광대하기 때문에 물류와 유통 상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생산 거점의 다양화가 필요함. 특히 부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계의 쟈퉁타이어가 중국의 동으로는 안후이, 서로는 닝샤, 충칭, 남으로는 푸젠, 북으로는 헤이룽쟝 등에 타이어 법인을 설립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임

□ 자원 절약과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

– 11차 5개년 기간(2006-2010년)에 자원 다소비형 산업과 환경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게다가 2010년이면 모든 기업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

(2) 일반 소비자 고객 대상

□ 중국의 개인 소비자를 고객으로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우선

–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 등이 더욱 어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국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중국 소비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접근

– 일본기업인 洋馬農機가 콤바인을 생산하면서 기능보다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특별히 강화하거나 타이어식 바퀴를 무한 궤도식으로 전환한 제품을 출시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부동산 개발로 진출한 기업은 중국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관행인 내부 인테리어 제공 약속과 함께 단지 전체의 일괄 분양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외면과 자금조달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 현지 유명 브랜드 제품 생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판로 확보의 다양화

– 일반적으로 소비제품의 경우 대리상을 활용한 판매가 대부분이나, 중국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리상에 대한 신용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충하기 어려움

○ 중국에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전국적인 유통이 가능한 대리상과 특정 지방에 한정된 유통망을 갖춘 대리상이 혼재된 상태임

– 또한 전국적인 소비제품 판매에 지방 대리상을 활용하게 된다든지 지방에 한정된 판매에 전국적인 대리상을 활용하는 경우에 판로 개척이 효과적일 수 없음

– 대리상을 통한 유통망 확충 외에 현지 유명 브랜드 제품 생산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리상과의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매 신장도 기대할 수 있음

○ 三洋電器가 중국의 대형 가전기업인 하이얼(海爾)과의 제휴로 전기밥솥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하이얼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고객의 니즈와 경쟁기업의 동향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 고객과 경쟁기업을 명확히 설정

– 고객을 대도시지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중소도시로 한정할 것인지, 또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할 것인지 특정 지방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유통망 구축

○ 三洋電器는 중국 전역의 대형백화점, 가전양판점 등은 물론 월마트, 까르푸 등의 대형 슈퍼마켓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만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진출

□ 고객 밀착형 AS 실시와 소비자 불만 사항 파악

– 소비제품 중에서 가전이나 일상용 전기용품의 경우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중국 제품과 차이에서 오는 잘못된 사용 또는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객 밀착형 AS가 필수적임

○ 洋馬農機가 콤바인의 AS를 위해 특약점을 꾸려 출장수확업자와 이동하면서 AS를 실시하는 철저함이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관건이었음

– 특히 중국기업의 경우 일부 중국 유명 가전기업을 제외하고 신속한 AS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AS를 한다면,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음

○ 중국 소비자도 입소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AS는 시장 점유율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

□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 접근

– 중국 소비자의 현재 소득 수준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소득수준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의 소비패턴을 주목하여 중국 소비자에 걸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선양으로 부동산개발 투자로 진출한 기업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 녹지비율을 크게 높인 점은 돋보이는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 볼 수 있음

(3) 기업 고객 대상

□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 극복

– 기술 도입과 대량 생산체제를 통해 또는 기술 도입 없이 유사품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중국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품질 경쟁력이 필요

○ 일본 투자기업인 선양구허케이블(瀋陽古河電纜)이 초고압 케이블의 경쟁 입찰에서 중국기업의 가격 인하 입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고압 케이블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인 기술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 또한 우리나라 기업으로 다롄에 투자한 ○○산전의 배전반 공급도 중국 전력국 산하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도 꾸준한 품질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임

□ 부품 공급기업으로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승부

– 중국 완제품기업이 부품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다, 동일 부품에 대해서도 수개의 부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품 공급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을 잘 이해하는 화교기업과 공동 진출하되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동일 업종으로 선정

–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화교기업과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일본의 栃木富士産業은 대만의 六和機械가 주조 분야에, 栃木富士産業은 기계 가공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로 상승효과를 가져왔고,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주물, 기계가공 두 분야를 취급하는 기업이 적다는 점에서 합작을 결정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六和機械가 일찍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사정에 밝고 중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

– 화교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기업 경영과 관련 보이지 않는 간섭이나 압력이 덜함

○ 이와 같은 현상은 임금 상승률에서 나타나는데, 화교기업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이 1994~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1% 상승한 반면, 화교기업은 동 기간동안 연평균 9.8% 상승함. 이 때문에 2004년 화교기업의 임금이 연간 15,727위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4,713위안이나 적음

라. 진출 형태

□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 형식으로 진출이 바람직

-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 진출 형태가 단독투자 형태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단독투자 진출을 선호하고 있음

  ○ 2001년 WTO 가입 이전에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작투자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으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이러한 진입장벽이 폐지되었음

-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단독투자 진출의 증가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한편, 합작투자 진출 시에 기술유출 가능성, 의사결정 지연 등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짐

- 비록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앞의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사례에서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과의 합작투자가 3건 가운데 1건이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투자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기업은 4개 중에 가구 매장 1개사만 합작투자였음

  ○ 2004년도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444개 중국 현지법인 가운데 합작법인의 적자비율이 79.1%로 단독투자보다 30.2%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국유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동북지역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설비, 선박 등 자본재 생산기지로 재건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 지역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안산철강(鞍山鋼鐵), 중국촨보중궁그룹(中國船舶重工集團), 하얼빈뎬잔서베이그룹(哈爾濱電站設備集團), 중국디이중싱지세그룹(中國第一重型机械集團), 중국베이팡지처처량그룹(中國北方機車車輛集團), 중국항쿵디이그룹과 디얼그룹(中國航空工業第一集團, 第二集團), 중국스유톈란치그룹(中國石油天然氣集團: CNPC)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이의 산하 기업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GITI의 상하이 지주회사가 헤이룽장의 국유기업으로 상장법인인 타이어 기업의 인수가 좋은 사례임

2. 진출기업의 금융지원 가능성

가. 해외투자 관련 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발굴

– 우리나라 기업의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동북지역 재건이 활발해질 경우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0년에 동북지역 각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재건을 완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동북지역의 산업기반이 IT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등의 산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투자자금 지원은 후술하는 현지법인앞 사업자금 지원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동북지역으로의 해외투자기업 발굴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법인앞 해외사업자금 지원 대상 발굴

- 동북지역 진출 현지법인은 물론 중국 진출 현지법인의 공통된 점은 국내 본사의 담보에 의한 자금 조달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 동북지역 진출 현지법인의 경우 운전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서 국내 법인의 담보 등을 통한 현지법인앞 사업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지원은 국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중국 투자 모니터링 실시

- 국내 증시 상장기업, 특히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 가운데 동북지역 진출 현지법인을 발굴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 12월 결산법인의 적자비율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004년 결산법인 가운데 17.9%(531개 기업 중 85개), 2005년에는 15.7%(534개 기업 중84개)임

  ○ 코스닥 등록의 경우 2004년에 27.6%(768개 중 212개), 2005년에 31.9%(831개 중 265개)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적자비율이 비교적 높음

나. 중국 금융법인 설립 모색

□ 현행 중국의 외환관리 규정의 해외차입 관리 강화로 현지법인의 활발한 해외 차입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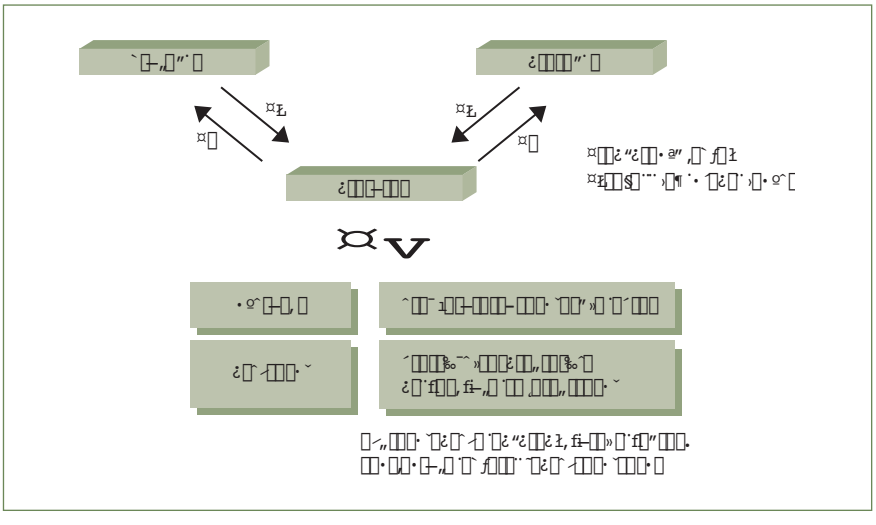
– 중국 외환관리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투자금액(投資總額)과 등록자본(注册資本)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외화차입 가능

– 또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투자기업이나 기 진출 중국 현지법인들이 외화 자금 차입 시 중국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가 획득 필요

–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 대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리를 받지 않음

○ 외국계 은행이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사전에 해외차입 인가를 받기 때문임

<그림 Ⅴ-2> 역외 담보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출 절차



참 고 자 료

김주영 외, 중국 동북3성 재건과 우리의 진출방향, 한국수출입은행, 2004. 6

김주영, 중국 동북3성 재건 배경과 전략, 수은해외경제, 2004. 6

_____,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경영성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 수은해외경제, 2006. 6

_____, 빠르게 변화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환경, 수출지향기업에는 부정적 요인 많아, 수은해외경제 2006. 4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중국 및 미국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비교분석, 2005. 11

_____,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2005. 9

Kotra,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 2

Kotra, 중국 동북진흥공정과 우리의 참여방안, 2005. 6

稻垣 清, 21世紀中國總研, 中國進出企業地圖, 蒼蒼社, 2005. 6

北 眞收, 中國市場を指向した共生型製造モデル一日中企業間連携の模索とマネジメント上の留意点, 開發金融研究所報, 2002年4月 第11號

日系企業の中國販市場戰略を探る,ジェトロセンサ渓一 2004. 6

日本企業の中國における市場戰略のポイントを考える, 開發金融研究所報 2003年1月 第14號

日系企業の對中投資戰略: ケ一ススタディ一, ジェトロセンサ一 2002.8

中國の事業環境を點檢る, ジェトロセンサ一 2004. 12

中國進出日系企業の人才活用術と人事戰略を探る, ジェトロセンサー 2005. 7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喬木編著, '振興東北', 中國工人出版社, 2004

www.china.com.cn 중국 인터넷

www.huagn.gov.cn 北京大地方大學研究院

www.chinaneast.gov.cn 東北振興

www.drcnet.com.cn 國務院發展研究中心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www.mofcom.gov.cn 商務部

www.sdpc.gov.cn 國家發展計劃委

www.news.xinhuanet.com

사례 중심의 동북아 진출 전략

-중국 동북지역-

발 행 일	2006 년 6 월 23일
발 행 인	신 동 규
편 집 인	이 재 민
발 행 처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